‘10.9 사건’
Media 보도자료

출처 : 국내외 미디어

보고자 : Micah

INDEX

'중국 기독교 목사 Ezra Jin Mingri의 석방 촉구' – Hudson Institute (2025.10.22) 4

체포된 中 가정교회 지도자 진밍리 목사 딸 “박해 잊지 말라” 호소 (10.21) 8

中 구금된 목사 딸, 박해받는 이들 위한 기도 요청(10.21) 10

"가장 광범위한 단속…중국 기독교인들 위해 기도 부탁"(10.21) 13

중국 대규모 지하 가정교회 목사 탄압… 체포된 목사의 노모, 심장병 발작으로 쓰러져 (10.20) 16

China’s crackdown on unregistered churches angers US (10.18) 22

KWMA, 중국 시온교회 체포 사태 관련 기도 요청 (10.18) 26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체포 (10.15) 28

시온교회 목사, 중국서 구금… 종교 감시단체에 신고 (10.11) 30

China: Nationwide Crackdown on Major Underground Church (10.13) 33

China Detains Influential House Church Pastor (10.11) 37

Detention of Zion House Church Leaders in China (10.12) 41

China Arrests 30 Pastors, Targets Independent Churches in Crackdown (10.17) 42

중국, 30명의 목사 체포…독립 교회 겨냥한 단속 강화(10.17) 45

북경시온교회 목사 김명일 체포…미국 “종교 박해 중단하라” 촉구 (10.13) 48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10.14) 51

中, 지하교회 목사 수십명 체포…美국무 "즉각 석방하라"(10.13) 53

中 시온교회 지도자 30여 명 구금 · 실종… 10월 9일 이후 행방 묘연(10.14) 55

미중 갈등 고조 속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성명 발표(10.12) 57

루비오 美국무 “中, 구금한 목사들 즉각 석방하라”(10.13) 58

목사 구금 사건 두고 갈등 빚는 미 · 중(10.15) 59

美 국무부 "中, 가정교회 탄압 중단하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 규탄 (10.13) 60

중국 6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여 명 체포 구금당해(10.15) 62

KWMA, 中 구금된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 위해 기도 요청 (10.17) 67
中 정부, 전국 시온교회 급습… 지도자 30여명 체포, 국민일보 (10.15) 69
중국 6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여 명 체포 구금당해(10.15) 71
이재훈 목사, 중국 정부에 체포된 시온교회 리더 에스라 진 목사 석방 촉구 (10.14) 74
전국 6개 도시 동시 급습… 中 1만명 시온교회 리더 30명 구금, 국민일보(10.14) 77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 경향신문(10.14) 79
中, 가정교회 목회자 수십명 체포…가족들, 전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10.14) 81
中 시온교회 지도자 30여 명 구금 · 실종… 10월 9일 이후 행방 묘연, 기독일보(10.14) 83
中, 지하교회 목사 수십명 체포…美국무 "즉각 석방하라", (10.13) 85
중국 시온교회 목사 등 구금에…美 '종교자유 허용' 촉구, 뉴시스 (10.13) 87
루비오 美국무 “中, 구금한 목사들 즉각 석방하라”, 세계일보, (10.13) 89
美 국무부 "中, 가정교회 탄압 중단하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 규탄, 기독일보(10.13) 90
미 "중, 구금한 가정교회 목사들 석방하고 예배 자유 허용하라", MBC뉴스(10.13) 92
美 "中, 구금한 가정교회목사들 석방하고 예배자유 허용하라", 연합뉴스, (10.12) 94
중국 가정교회 대대적 단속에…美 '종교자유 허용' 촉구 96
미국 “중국, 기독교인 수십명 구금…예배 자유 보장해야”, KBS뉴스, (10.12) 98

'중국 기독교 목사 Ezra Jin Mingri의 석방 촉구' – Hudson Institute (2025.10.22)

Hudson Institute
@HudsonInstitute

On October 1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rrested Zion Church leader Pastor Ezra Jin in one of its largest crackdowns on a church in deca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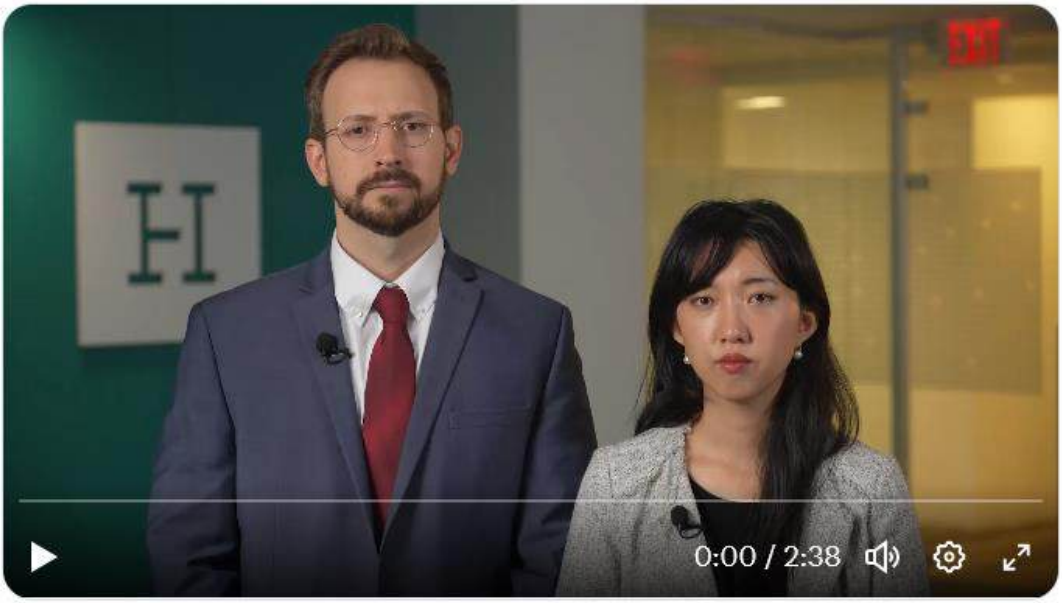
American leadership is needed to free the unjustly detained church leaders and support those suffering under the CCP's persecution.

영어에서 번역(Google 제공)

10월 10일,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 단속 조치 중 하나로 시온 교회 지도자 에즈라 진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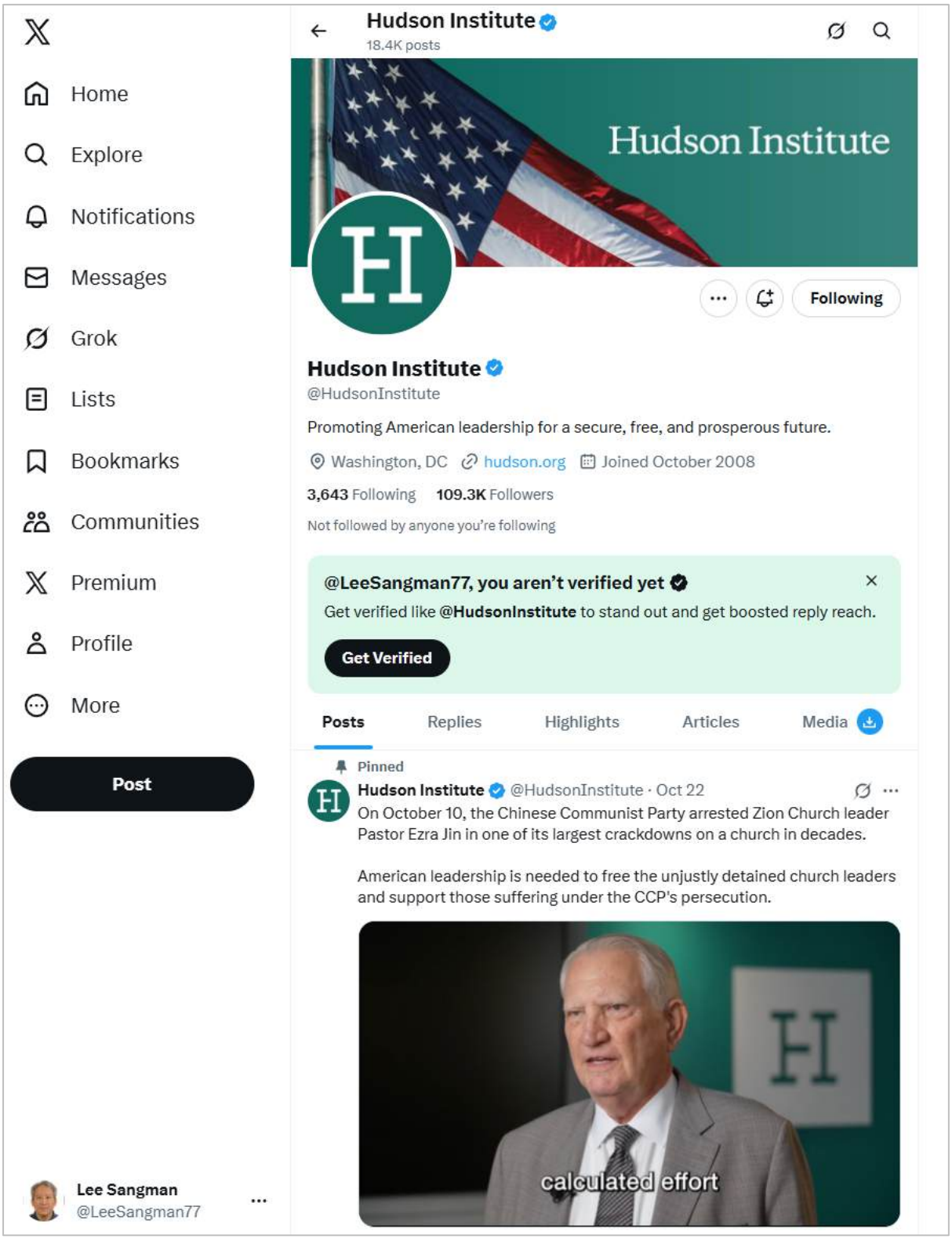
부당하게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번역 평가하기:



오후 9:47 · 2025년 10월 22일 · **38만** 조회수

동영상 링크 → https://youtu.be/dptiQdOLwdg


Home
Explore
Notifications
Messages
Grok
Lists
Bookmarks
Communities
Premium
Profile
More
Post
Lee Sangman
@LeeSangman77
Hudson Institute
18.4K posts
Hudson Institute
Following
Hudson Institute
@HudsonInstitute
Promoting American leadership for a secure, free, and prosperous future.
Washington, DC
hudson.org
Joined October 2008
3,643 Following
109.3K Followers
Not followed by anyone you're following
@LeeSangman77, you aren't verified yet
Get verified like @HudsonInstitute to stand out and get boosted reply reach.
Get Verified
Posts
Replies
Highlights
Articles
Media
Pinned
Hudson Institute @HudsonInstitute · Oct 22
On October 1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rrested Zion Church leader Pastor Ezra Jin in one of its largest crackdowns on a church in decades.
American leadership is needed to free the unjustly detained church leaders and support those suffering under the CCP's persecution.
calculated effort

Perplexity 분석 ···

Hudson Institute 는 중국 정부가 북경시온교회 EZRA JIN 목사를 포함한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단속을 시작한 이후, 국제적 관심과 미국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2025 년 10 월 22 일 '중국 기독교 목사 Ezra Jin Mingri 의 석방 촉구'라는 제목의 공개 대담 행사를 주최하여, EZRA JIN 목사의 딸과 사위를 초청해 목사의 상황과 미국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이 행사는 중국 공산당이 종교 자유에 대한 국제적 비판을 무시하며 무역 분쟁 중에 인권 침해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X.com 상의 활동

Hudson Institute 는 X.com(@HudsonInstitute)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10 월 10 일 중국 공산당이 지온교회(Zion Church) 지도자인 EZRA JIN 목사를 체포한 것은 수십 년 만에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단속 중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다른 국가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도록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EZRA JIN 목사의 체포는 이러한 요구에 순응하는 대가로 치러지는 인간적 대가를 상기시키는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stitute 의 간부인 올리비아 이노스(Olivia Enos) 선임 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이 당보다 높은 권위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을 권력의 위협으로 간주하며, 이 때문에 지하교회를 탄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책 제안

Hudson Institute 는 미국 정부가 EZRA JIN 목사와 기타 정치범의 석방을 APEC 정상회담 등 미중 고위급 회담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인권 침해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인권 보호를 위한 강력한 방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논거에 기반합니다. Institute 는 또한 중국 정부가 종교를 '중국화'(sinicization) 정책을 통해 당의 목표에 복무하도록 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종교적 실천을 당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체포된 中 가정교회 지도자 진밍리 목사 딸 “박해 잊지 말라” 호소 (10.21)

기독일보 이미경 기자(mklee@cdaily.co.kr)



진밍리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셀이 폭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YouTube/Fox News

중국 당국의 지하교회 탄압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구금된 저명한 목회자의 딸이 세계 교회에 “중국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은 19 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Fox News Sunday)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 세계 교회의 일부이며,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길 바란다”며 “그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드렉셀은 미국 시민으로, 최근 구금된 에즈라 진 밍리(Ezra Jin Mingri) 목사의 딸이다. 진 목사는 10 월 10 일 중국 광시성 베이하이(北海)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당국은 그에게 “불법 정보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드렉셀은 “정치적 동기로 조작된 혐의”라고 주장했다.

BBC 가 입수한 구금 통지서에 따르면 진 목사는 현재 베이하이 제 2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정보망의 불법 사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드렉셀은 “이는 단순히 종교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구실일 뿐”이라고 말했다.

진 밍리 목사는 1989 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에도 참여했던 인물로, 2007 년 중국 베이징에서 ‘시온교회(Zion Church)’를 설립했다. 이 교회는 중국 내 최대

규모의 미등록 복음주의 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으나, 2018 년 정부에 의해 공식 폐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러 도시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줌(Zoom)과 유튜브(YouTube), 위챗(WeChat)을 통해 약 1 만 명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진 목사가 체포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지에서 약 30 명의 시온교회 지도자와 신자들이 체포 또는 실종됐다.

드렉셀의 남편이자 허드슨연구소(Hudson Institute) 연구원인 빌 드렉셀(Bill Drexel)은 이번 사태를 "지난 40 년간 중국 내 교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단일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이번 탄압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시작에 불과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빌 드렉셀은 또 "중국 공산당은 국내외 정치적 긴장을 예상할 때 사회를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공공 불안이 일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나사 조이기식' 사회 통제에 나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레이스 진 드렉셀은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기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기적을 믿는다.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21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조건 없이 즉각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중국의 다른 박해 사례를 보면, 단기간 내 석방은 기적에 가깝다"며 "장기적인 법적 투쟁을 각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응도 불러왔다.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0 월 12 일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은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며, 당의 통제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당국은 모든 신앙인들이 보복의 두려움 없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린젠(林健)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NPR 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구금 사례를 알지 못한다"며 "종교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미국의 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2574#share

中 구금된 목사 딸, 박해받는 이들 위한 기도 요청(10.21)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입력 : 2025.10.21 14:31

美 폭스뉴스와 인터뷰



▲그레이스 진 드렉셀. ⓒ폭스뉴스

중국 공산당의 지하교회 탄압 속에 구속된 한 저명한 목사의 딸이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중국에서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글로벌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레이스의 아버지인 에즈라 진(Ezra Jin, 진밍리) 목사는 최근 광시성 베이하이 자택에서 중국 당국에 구금됐다. 진 목사는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불법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BC 가 입수한 구금 통지서에 따르면, 진 목사는 '정보망 불법 사용' 혐의로 베이하이 제 2 교도소에 수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원 직원으로 근무 중인 그레이스는 "이는 박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우 정치적인 혐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 ⓒ차이나에이드

진 목사는 1989 년 천안문 광장 시위에 참여했던 인물로, 2007 년 중국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 중 하나로 성장한 시온교회 설립을 도왔다.

초교파 복음주의 교회인 시온교회는 2018 년 당국에 의해 공식 폐쇄됐지만, 이후에도 중국 여러 도시에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재 약 1 만 명의 신자가 줌(Zoom), 유튜브, 위챗(WeCha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진 목사가 구금된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여러 도시에서 약 30 명의 시온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체포되거나 실종된 것으로 보도했다.

그레이스 진의 남편이자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인 빌 드렉셀(Bill Drexel)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탄압은 지난 40 년간 중국교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단속으로 보인다”며 “여러 도시에서 심각한 확대가 일어나고 있다. 정말 전국적인 움직임이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공공정보 정책을 주로 연구해 온 인물로서 “중국 공산당이 다가올 어려운 지정학적 시기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인구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들은 위기가 다가온다고 인식할 때 사회의 소통 창구를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 대중 불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나사를 조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기적적인 석방을 희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법적 싸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기적을 믿는다. 우리는 내 아버지와 함께 구금된 다른 이들의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에서 박해받는 다른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보면, 이렇게 빠르고 무조건적인 석방이 이뤄진다면 정말 기적일 것이다. 우리는 더 긴 법적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0 월 12 일 성명을 통해 진 목사와 다른 이들의 체포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지와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은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신자를 포함한 모든 신앙인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NPR 에 따르면 린젠(Lin Jia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체포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미국 측이 소위 종교 문제를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362

"가장 광범위한 단속…중국 기독교인들 위해 기도 부탁"(10.21)

중국 구금 시온교회 목회자 딸, 전 세계 기도 요청

박애리 기자 2025.10.21 13:56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의 담임 에즈라 진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 씨.(사진출처=Fox News 화면 캡처)

[데일리굿뉴스]박애리 기자= 최근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한 가운데, 중국의 저명한 목회자 자녀가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향해 "중국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을 잊지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의 에즈라 진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 드렉셀 씨는 지난 19 일(현지시간)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일부인 중국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이들을 잊지 말고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촉구했다.

진 목사는 지난 10 일 광시 성 베이하이 지역 자택에서 당국에 체포된 뒤, 현재까지 구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같은날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 지도자 30 여명을 동시에 체포했다. 교회 사무실과 성도들의 자택은 공안에 의해 급습을 당했으며, 예배용 장비와 자료가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거주 중인 진 드렉셀 씨는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온라인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그 혐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거짓 조장된 것"이라며 "아버지의 체포는 중국 당국이 박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혐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녀는 BBC 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몇 달 동안 시온교회 성도들이 경찰의 심문을 받는 횟수가 증가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압박 강화를 단속의 전조로 여겼지만, 실제로 규모가 이렇게 클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시온교회는 중국 내에서 복음적 신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정교회 연합체로, 2007 년 창립 이후 온라인과 소그룹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중국 내 40 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1 만 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드렉셀 씨의 남편 빌 드렉셀(Bill Drexel) 워싱턴 허드슨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체포는 지난 40 년 동안 중국 내 모든 교회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단속"이라며 "현재 여러 도시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가정교회 탄압은 전국적이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체포된 교회 구성원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간주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은 위기를 감지하면 사회의 문을 잠그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절대적인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진 드렉셀 씨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기적을 믿는다"며 "아버지와 구금된 다른 교회 지도자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사례를 볼 때, 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석방된다는 것은 정말 기적같은 일일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이 직면할 더 길고 어려운 법적 싸움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온교회 지도자들의 구금 소식에 트럼프 행정부도 이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중국 내 기독교인 탄압 실태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전달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진 목사를 즉각 석방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탄압 없이 예배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헌법상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종교단체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중국은 종교를 범죄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 공산당에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가정교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대규모 지하 가정교회 목사 탄압… 체포된 목사의 노모, 심장병 발작으로 쓰러져 (10.20)

2025 년 10 월 20 일



- ✓ 목사 손총, 어머니가 놀라 심장병 발작으로 쓰러지는 모습 목격… 얼굴이 창백해져
- ✓ 중국 대규모 지하 가정교회 목사 탄압… 체포된 목사의 노모, 심장병 발작으로 쓰러져

(대만 소식 — 2025년 10월 20일) 이번 작전의 초점은 시온교회 목사 김명일, 왕린, 윤회빈 세 목회에 집중된 것으로 보이며, 당국은 이들이 “불법 정보 네트워크 이용죄”에 연루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 경영죄”와 “사기죄”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관측에 따르면, 베이징 당국은 종교 신앙과 직접 관련된 죄명을 피하려는 의도를 보이며, 대신 경제 관련 혐의 등을 빌려 가정교회를 행정 수단으로 탄압하는 것을 합리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국 종교 상황 감시를 교묘히 회피하고 있다.

대화원조협회 회장 푸시추(傅希秋) 박사는 19일 대만 삼립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체포 작전 이전에 김명일 목사는 예감하고 있었다”며 “올해 5월 이미 한 목사가 체포된 바 있기 때문”이라고 기자에게 전했다. 김명일 목사는 9월 베이징 소재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갱신을 하려다 70여 명의 국보(공안부 국내안전보호국) 요원들에게 가로막힌 뒤 광시(廣西) 성 북해(北海)로 송환됐다.

광시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이미 사태가 심각함을 직감했다. “그는 당시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를 광시로 호송하는 거지?'라며 이상함을 느꼈다”고 푸 박사는 전했다. 장기간 출국이 제한된 김명일 목사는 미국에 있는 가족과 재회할 수 없었고, 갑작스러운 탄압에 직면해 그와 지지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푸 박사는 “이번 탄압의 규모가 이토록 클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검거 작전은 광시성 북해시 공안국이 주도했으며, 베이징, 쓰촨, 상하이,

저장, 산동, 광둥, 광시, 하이난, 푸젠, 랴오닝(신규 추가) 등 최소 10개 성 · 시에서 진행됐다.

작전은 주로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집중됐으며, 경찰은 강제로 전기를 차단하고 가택 수색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쑨쿵의 집은 밤중에 급습당해 주거지가 전면 수색당했다. 푸시추 박사는 "쑨쿵의 어머니가 과도한 공포로 현장에서 쓰러져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11일 새벽에 체포 작전을 벌였으며, 영상에는 한 남성이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이 담겼고, 문 밖에서는 계속해서 수색을 요구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푸시추, 중국 내 교회 탄압 세부 사항 인터뷰에서 밝혀

(사진: 기자 장위핑 촬영)

푸시추 박사는 인터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김명일의 장모가 받은 형사구류 통지서에서 체포 작전이 이미 9월 26일 공안국에 의해 승인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번 작전이 오래전부터 계획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푸 박사는 "계획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명일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돌아와 선교 활동을 시작할 당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언급하며, "위험이 닥치기 전에 가족을 먼저 미국으로 보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온교회가 주요 탄압 대상이 된 것은 그 규모와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교회는 2007년 김명일이 베이징에서 설립한 이후 급속히 성장해 중국 가정교회 중 가장 대표적이고 국제적인 교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푸 박사는 시온교회가 40개 도시에 100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주간 모임 인원은 약 5000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교단에 가입한 신자들 중 매일 아침 1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크리스마스 행사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푸 시추는 “중국 공산당은 이 교회가 규모가 방대하고 조직이 엄격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정치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2018년 시온교회는 해산 명령을 받고 강제적으로 온라인 설교로 전환됐다. 올해 9월 중국 국가종교사무국은 '종교 교직자 행동 네트워크 규범'을 발표해 공식 승인 없이 온라인 전도와 상업적 마케팅을 엄격히 금지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푸 시추 박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중국원조협회는 이미 미국에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치며 미국 정부와 연락을 유지하고, 미국 국무부가 중국 측에 체포된 인원 석방을 촉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또한 의회도 청문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동시에 중국 내 교회 구성원들은 연락을 유지하며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교인들과 각계는 매우 단결되어 있다. 불안과 고통의 시기를 겪었지만 가정과 교회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 교회는 즉시 협력팀을 구성해 모든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했다.”

푸시추 박사는 중국 공산당의 압박이 시온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그 인내력과 발전 잠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그들은 이미 다층적인 후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교회는 자체 통신 앱을 보유하고 있어 중국 네트워크 감시를 우회할 수 있다. 조직 체계는 완전하고 견고하다”고 말했다.

목사들의 소송 건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 현재 교회와 각계는 사법 절차가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대화원조협회 고진세 기자, 대만 삼립뉴스 보도

https://www.chinaaid.net/2025/10/blog-post_81.html?utm_source=chatgpt.com

中国大规模镇压地下家庭教会牧师 遭逮牧师老母亲吓坏心脏病发（10.20）

10/20/2025



牧师孙聪目睹母亲受惊致心脏病发倒下脸色惨白

中国大规模镇压地下家庭教会牧师 遭逮牧师老母亲吓坏心脏病发

（台湾讯— 2025 年 10 月 20 日）此次行动的重点很可能集中在锡安教会的牧师金明日、王林和牧师尹会彬三名牧者，官方指控他们涉嫌“非法利用信息网络罪”，也可能涉及“非法经营罪”和“诈骗罪”。观察指出，北京方面有意避免使用与宗教信仰直接相关的罪名，转而借用经济类等指控，以行政手段打压家庭教会使它合理化，从而狡猾的规避国际社会对中国宗教状况的监督。

对华援助协会会长傅希秋博士（19 日）接受台湾三立新闻网采访时向记者表示，在这次逮捕行动之前，金明日牧师有一些预感，因为早在今年 5 月就有一名牧师被抓；金明日牧师 9 月前往位于北京的美国驻华大使馆打算更新签证时，竟被 70 多名国保（公安部国内安全保卫局）拦下，之后将他送回广西北海。

在被押送回广西就觉事态不妙。“他当时就觉得不太劲，为什么要派这么多人押送他回广西？”傅希秋博士说。因长期被限制出境，金明日无法与在美国的家人团聚，面对突如其来的镇压，他与支持者只能欣然接受现实。但是傅博士说，“这次镇压规模之大仍出乎意料。”

此次缉捕行动由广西北海公安局主导，波及至少十省市，包括北京、四川、上海、浙江、山东、广东、广西、海南、福建和辽宁（新增）。

行动发生的时间多集中在深夜与凌晨，警方强行断电入户搜查描述。孙聪的家在夜间被突袭，住所遭全面搜查。傅希秋博士说：“孙聪的母亲因惊吓过度，

当场倒下，被紧急送医。”警方在 11 日凌晨进行抓捕，画面中一名男子被警方押解，门外不断有人敲门要入门搜查。



傅希秋受访讲述中共打压中国境内教会细节
（图：记者张渝萍摄影）

傅希秋博士在采访中进一步指出，从金明日岳母收到的刑事拘留通知书可见，逮捕行动早在 9 月 26 日就由公安局批准，表明早已预谋了此次行动。傅博士说：“计划好了。”他还提到，金明日刚从美国返回中国传教时，充分考虑到可能面临的风险，“如果还没到风险，他也不会带家人先被送往美国。”

锡安教会成为重点打压对象，和其规模和影响力密切相关。该教会自 2007 年由金明日在北京创立以来，迅速发展壮大，成为中国家庭教会中最具代表性和国际性的教会之一。傅博士指出，锡安教会在 40 个城市中设有 100 个个分会，每周聚会人数约达 5000 人，加入其宗派的信徒中，每天早上超过万人在线读经，圣诞晚会线上线下参与人数超过十几万人。傅希秋分析称，“中共认为这个教会发展规模庞大，组织严密，构成了它无法完全掌控的政治威胁。”

2018 年，锡安教会曾发起取缔，强制转为线上布道。今年 9 月，中国国家宗教事务局发布了《宗教教职人员行为网络规范》，严格禁止未经官方批准的网络传教和商业营销。尽管面临打压，教会活动依然持续。傅希秋博士表示：

对华援助协会已在美国展开积极游说，与美国政府保持联系，促使美国国务院发声呼吁中方释放被捕人员，国会亦准备召开听证会。同时，在中国境内的教会成员保持联系，活动未曾中断，“教友与各方非常团结。虽然有一个焦虑和受困者的一个时期，对但家庭和教会都带来了影响，教会第一时间成立了协作小组，确保各项活动顺利进行。”

傅希秋博士确信，中共的抗压不会瓦解锡安教会，反而会增强其耐力和发展潜力。他说：“他们已有多层接班梯队，教会还拥有自家通讯 APP，可绕过中国网络监控，组织体系完整且稳固。

对于牧师诉状的未来，目前，教会及各方只能等待司法程序进一步明朗。

对华援助协会高珍赛根据台湾三立新闻网的报道（连接）

https://www.chinaaid.net/2025/10/blog-post_81.html?utm_source=chatgpt.com

China's crackdown on unregistered churches angers US (10.18)

Detention of Zion Church founder and followers underscores Beijing's intolerance of religious freedom



The Zion Church was also targeted in 2018, when it was forced to close its Beijing building after refusing to install surveillance cameras © AP

William Langley in Guangzhou

PublishedOct 18 2025

A Chinese crackdown on a prominent Christian church has created a new flashpoint in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Beijing and underscored the country's intolerance of religious freedom.

China last week detained more than 20 members of the Zion Church, one of the country's largest unregistered Christian networks, including its founder and chief pastor Ezra Jin, also known as Jin Mingri, according to a Zion pastor and Jin's daughter Grace Jin Drexel. A small number have since been released.

The detentions triggered a rapid response from the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who called for their release and said the crackdown "further

demonstrates how the CCP [Chinese Communist party] exercises hostility towards Christians who reject Party interference in their faith".

Beijing's latest action represents an escalation of a years-long push to root out large religious networks, many of which went online during the pandemic, and to limit unregistered worship to smaller private ceremonies.

Last mon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said religions should "further adapt to the Chinese context" while also calling for "improved policies and frameworks" and "strict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also released guidelines that warned against online preaching for all but officially sanctioned churches and temples.



A pastor of Zion Church is detained by police at his home in Beijing © Sean Long/AP

"It's the end of an era of . . . huge growth in Protestantism," said Ian Johnson, author of The Souls of China: The Return of Religion After Mao.

While religion was severely restricted in China under Mao Zedong, practice has grown since his death in 1976. The state has sought to tightly control worship and only recognises Buddhism, Taoism, Catholicism, Protestantism and Islam. Religious groups must belong to state-approved associations.

The number of Christians in the country is hard to fully estimate, partly because many believers are members of unregistered house churches that are not endorsed by the state. Others often hold a plurality of beliefs, practising elements of Christian faith alongside a mix of other religions.

About 1 per cent of Chinese adults identified with "Christianity" in 2021,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Pew Research Center.

By the late 2010s, unregistered Christian worship had increased, with groups such as Zion and the Early Rain Covenant Church hosting regular services in Beijing and the southwestern city of Chengdu, respectively.

In 2018, China detained 100 members of the Early Rain church, including its leader Wang Yi, an open critic of Xi Jinping. Authorities also shut down the Zion Church's Beijing site after it refused to install surveillance cameras.

It was in the run-up to that crackdown that Ezra Jin returned from the US to China where he was briefly detained and banned from leaving the country, according to his daughter.

While the crackdown forced Zion further underground, it also pushed it towards a more decentralised, online model, Jin Drexel said. That model gathered momentu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ventually extending the church's reach to more than 40 cities and more than 10,000 followers.

The church now distributes religious teachings online in videos that regularly garner thousands of views. "I think the current administration is saying . . . we won't prevent people from worshipping in their home with some friends, but we're not going to allow civil society type structures to take root in China," said Johnson.

Francesco Sisci, a Rome-based expert on Christianity in China, argued that the timing of the detentions was a message to the US. Grace Jin Drexel is a US Senate worker, while her husband, Bill Drexel works for the Washington-based Hudson Institute.

"China is putting a lot of pressure on the United States," Sisci said, pointing to the fact that the timing coincided with Beijing's announcement of "all-out" measures to control the supply of rare earth metals. "To me this thing against the Church of Zion is part of the same thing . . . There are a lots and lots of Protestant churches . . . in China. They just picked this one."

Bill Drexel said Beijing may see the detained church members as "leverage" with the US.

China'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did not immediately respond to a request for comment. The foreign ministry said that China "safeguards citizens'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nd "firmly opposes the US interfering in China's internal affairs with so-called religious issues".

https://www.ft.com/content/26a6a6e9-329d-4bce-9e25-1c37138e0933?utm_source=chatgpt.com

KWMA, 중국 시온교회 체포 사태 관련 기도 요청 (10.18)

10 월 10 일 경 중국 가정교회 리더 김명일(에스라 진) 목사와 리더 30 여 명 체포 구금

김현성 기사입력 2025/10/18 [05:38]

한국세계선교협의회(사무총장 강대흥 선교사, KWMA)는 지난 10 월 10 일 중국 시온교회의 김명일(에스라 진) 목사를 비롯한 30 여 명이 체포된 사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신앙의 자유 회복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 강대흥 사무총장(KWMA) ©뉴스파워

에스라 진 목사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도시 가정교회를 세운 리더로 2007 년에 세운 베이징 시온교회가 2018 년 정부에 의해 폐쇄된 이후 전국적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며, 중국 40 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어 1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에스라 진 목사는 사역을 하던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베이하이(北海)에서 체포됐다. 이 사태를 예견한 에스라 진 목사는 몇 년 전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이번 체포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중국 정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이다.

KWMA 는 “우리는 이 일이 중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며 “모든 사람의 신앙과 예배의 자유는 인류 보편의 권리이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통해 중국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중국 정부 또한 종교 공동체의 평화로운 예배와 교제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명일 목사와 구금된 지도자들 ▲그들의 가족들 ▲중국교회와 성도들 ▲중국 정부와 사회▲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한 기도제목을 공유하고 기도를 요청했다.

KWMA 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제시했다.

KWMA 가 함께 드리는 기도제목

1. 에즈라 진(김명일) 목사와 구금된 지도자들을 위해
- 감옥 가운데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도록
- 건강이 지켜지고, 불의한 대우로부터 보호받도록

2.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
-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도록
- 경제적 · 정서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3.중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고난보다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 이 시간을 통해 신앙이 더욱 순전하게 세워지도록

4. 중국 정부와 사회를 위해
-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이 확산되도록
- 종교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 열리도록

5.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 중국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향한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도록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체포 (10.15)

에즈라 진 목사 등 교회 관계자 30 여 명 구속, 국제사회 우려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25 년 10 월 15 일(수) 17:35



최근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에즈라 진 목사. /사진 크리스차너티 투데이



국제로잔위원회 모임에서 로잔 관계자들이 에즈라 진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사진 에반젤리칼 포커스

중국 내 대표적인 가정교회 연합체인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와 교회 관계자 약 30 명이 최근 경찰에 체포 되는 등 중국 정부의 기독교 박해가 조직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 일 중국 가정교회 리더인 조선족 에즈라 진(한국명:김명일) 목사를 비롯한 시온교회 리더 30 여 명을 6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체포했다. 이번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는 지난 40 년 동안 도시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단속이다.

체포된 에즈라 진 목사는 최대 규모의 교회 네트워크 중 하나인 시온교회를 설립했다. 2018 년 중국 정부는 시온교회의 베이징 예배당을 폐쇄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빠르게 성장했다. 현재 시온교회 네트워크는 40 개 도시 약 1 만 명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목회자 및 교인을 구금했으나 대부분 며칠 뒤 석방되는 경우가 많았다.

비영리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에 따르면, 지난 10 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에 있는 에즈라 목사의 아파트에 경찰 10 여 명이 들이닥쳐 밤새 수색을 벌인 후 그를 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 베이하이에 있는 교인들 중 10 여 명 이상과 연락이 끊겨 구금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이재훈)도 이번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에즈라 진 목사 가족이 공개한 기도제목을 공개하며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로잔위원회측은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해 왔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며 "이번 중국교회가 다시 겪는 고난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온교회가 발표한 기도편지에 따르면, 지난 월에는 시안(西安)에서 '정의 집행을 방해하는 미신적 행위'를 이유로 시온라이트교회 가오취안푸 목사가 체포됐으며, 6 월에는 린펀의 양룽리 목사와 교인 10 명이 사기 혐의로 투옥되어 양 목사는 징역 15 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 박해를 당한 가정교회들의 사례도 공개되어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조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2 일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진밍르(에즈라 진)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표현모 기자 (기독공보)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10835364184

시온교회 목사, 중국서 구금… 종교 감시단체에 신고 (10.11)

DAKE KANG 작성
2025 년 10 월 11 일 오후 10 시 24 분 GMT+9 업데이트됨



동아시아 국가에서 종교를 감시하는 단체이자 교회 목사인 그의 딸에 따르면, 중국의 유명 지하 교회 목사가 구금되었다고 합니다.

시온 교회의 에즈라 진 밍리 목사는 금요일 저녁 중국 남동부 광시성 베이하이에 있는 자택에서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 최소 5 개 성의 교회 지도자들 수십 명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 시온 교회 목사 션 롱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종교 콘텐츠 불법 유포" 혐의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롱은 AP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매우 불안하고 괴로운 순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잔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이 즉시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롱은 중국에 있는 수십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온라인 그룹 채팅에 경찰이 교회 공간에 들어가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면서 체포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온 교회는 중국 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최대 규모의 소위 지하 교회 또는 가정 교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신자들이 등록된 교회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규제를 거부합니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에서 베이징은 지난 10 년 동안 독립적인 기독교 신도들을 탄압하여 십자가를 파괴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교회를 폐쇄하고, 신도들에게 신앙 포기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무신론자인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고, 국민의 삶에 대한 공산당의 권력에 대한 모든 도전을 제거함으로써 종교의 "중국화"를 추진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진 씨의 딸 그레이스 진 씨는 최근의 탄압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시온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공산당 통치에 도전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는 "코로나 19 이후 자이언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정부는 화가 났다"고 말했다.

2018 년 전국적인 단속 과정에서 많은 지하 교회가 표적이 되었고, 시온 교회의 본당은 폐쇄되었습니다 .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시온 교회는 온라인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신도 수가 증가했습니다. 팬데믹 제한 조치로 인해 정부 인가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교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던 신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롱에 따르면, 교회 회원 수는 2018 년에 약 1,500 명에서 현재 5,000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중국 전역의 약 40 개 도시에 아파트, 레스토랑, 심지어 노래방까지 100 곳이 넘는 예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중국의 다른 지하 교회들도 압박을 받았습니다.

5 월에는 중국 동부 시안의 시온 빛 교회 목사가 구금되었고, 6 월에는 서부 산시성의 금등대 교회 신도 10 명이 4 년 전 체포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의 종교 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의 설립자인 밥 푸(Bob Fu)는 "우리는 지난 40 년 동안 중국에서 도시 독립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가장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박해의 물결을 목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나에이드는 시온 교회 체포 사건도 보도했습니다.

그레이스는 2018 년 당국이 시온 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후, 아버지인 진 목사가 가족을 미국으로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6 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로서 양 떼와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그분은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계셨잖아요."

강대익 : 강 기자는 AP 통신 베이징 지부에서 중국 정치, 기술, 사회를 취재합니다. 그는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을 취재했으며, 중국 탐사보도 부문에서 퓰리처상

China: Nationwide Crackdown on Major Underground Church (10.13)

Arrests of Zion Church Clergy Underscore Intensifying Controls Over Religion



Click to expand Image

Jin Minri leads a class on the basics of Christian beliefs at the Zion Church in Beijing, China, August 4, 2018. © 2018 Ng Han Guan/AP Photo

(New York) – Chinese authorities on October 10–11, 2025, arrested nearly 30 pastors, preachers, and church members of the unofficial Zion Protestant Church in seven cities, including Beijing, Shanghai, and Zhejiang, Human Rights Watch said today. Among those arrested was the pastor and founder of the Zion church (錫安教会), Ezra Jin Mingri, 56, in Beihai city, Guangxi province.

The Chinese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ree the dozens of people detained across China because of their affiliation with Zion and other

unofficial Protestant churches. Until their release, the authorities should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detainees to their families and ensure that they have access to lawyers of their own choosing.

"The Chinese government's arbitrary detention of dozens of people affiliated with Zion church reflects an escalating crackdown on religious freedom," said Yalkun Uluyol, China researcher at Human Rights Watch. "President Xi Jinping's government appears intent on reshaping religious practice to serve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interests, and congregations that fail to do so face harsh persecution."

Jin and seven other pastors are being held in Beihai City No. 2 Detention Center, according to a statement by their family members. At least five of those detained were reportedly released; the whereabouts of the rest have not been revealed.

Zion Church, founded in 2007, has previously faced official harassment. In 2018, authorities shut down the church in Beijing and placed a travel ban on Jin and prevented him from visiting his family in the United States. Despite severe restrictions, the church continued to grow and is now one of the largest unofficial Protestant congregations in China, with thousands attending its services across the country.



Official seal notices are affixed to a back door at the Zion Church after authorities shut it down, in Beijing, September 11, 2018. © 2018 Andy Wong/ AP

The latest crackdown came after the authorities issued an Online Code of Conduct for Religious Professionals in September, banning the circulation of unauthorized religious content online, effectively denying public access to religious teachers and teachings outside of Communist Party control. Jin was arrested for "illegal use of information networks," a crime under China's criminal law (article 287–1) which carries up to three years in prison.

The Chinese government has a long history of severely restricting the right to freedom of religion. The 2005 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 require all religious groups to be registered and controlled by the authorities. Protestant churches face repeated pressure to become affiliated with the Three–Self Patriotic Movement, the official umbrella organization for Protestants.

But the control has escalated since 2016, when Xi pledged to "Sinicize" religion, and tightened ideological control. The authorities have demolished hundreds of church buildings or the crosses atop them, prevented adherents from gathering in unofficial churches, restricted access to the Bible, confiscated religious materials not authorized by the government, and banned Bible and religious apps. The Sinicization of religion has also meant severe repression of Tibetan Buddhism and Islam.

Other influential underground Protestant churches harshly persecuted in recent years included Beijing Shouwang Church, which was shut down in 2019, and Chengdu Early Rain Covenant Church. Its founding pastor, Wang Yi, was sentenced to nine years in prison in 2019.

Earlier in 2025, courts sentenced over a dozen people affiliated with the Linfen Golden Lampstand Church, an underground Protestant church in Shanxi province, for fraud. The church's cofounder and pastor, Wang Xiaoguang, and his wife, Yang Rongli, were sentenced to 9 and 15 years in prison, respectively.

The Zion Church issued a statement on October 12 calling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all arrests, intimidation, and harassment against

Zion Church and other house churches in China" and for "the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detained."

Concerned governments should publicly condemn the Chinese government's assault on religious freedom and pressure the Chinese government to free those affiliated with Zion Church and all other members of underground churches wrongfully detained for exercising their basic rights, Human Rights Watch said.

"The Chinese government's crackdown on religious practice is tied to its efforts to tighten ideological control, both at home and abroad," Uluyol said. "Governments should ensure the Chinese government is held accountable for such violations and press for religious freedom in China."

China Detains Influential House Church Pastor (10.11)

Angela Lu Fulton

Authorities arrested Zion Church's Pastor Jin "Ezra" Mingri along with dozens of church leaders.



Pastor Jin Mingri in 2018.

Fred Dufour / AFP

Since Thursday, police have detained nearly 30 pastors and staff members of Zion Church, an influential Chinese house church network, in what many fear is the beginning of a new wave of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in China.

The arrests took place in at least six cities across China. More than 10 officers broke into senior pastor Jin "Ezra" Mingri's apartment in Beihai, Guangxi province, on Friday and searched his home all night before taking him away in handcuffs, according to the nonprofit ChinaAid. Authorities detained one pastor at the Shenzhen airport. Church members have lost contact with more than a dozen congregants in Beihai and are uncertain whether they've also been arrested.

Jin's daughter, Grace, who lives in Maryland near Washington, DC, first heard about the roundup on Friday morning as she woke up to see her

father's prayer–request letter about Zion pastor Wang Lin's arrest. Then she received a call from her mom, who also lives in the US, saying she had lost contact with her dad. They later found out he was under arrest in Beihai.

Grace always knew this could happen. In 2018, the government shut down Zion Church's sanctuary in Beijing. Yet since the pandemic, the church has grown rapidly through its hybrid model of livestreaming services to small groups across the country. Today the church network includes nearly 10,000 people spread across 40 cities. Likely because of this growth,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targeted the church, breaking up services and detaining pastors and church members—although typically releasing them after several days.

"I didn't want to believe this was happening," she said. She tried to downplay her father's unavailability, thinking perhaps officials had just invited him to "drink tea" (a euphemism in China for police interrogations). "I did not want to look at what it entailed."

Jin, an ethnic Korean from northeast China, became a Christian after the Tiananmen Square massacre left him disillusioned about the country's Communist government. At a local church, he found hope he couldn't find anywhere else. In 2007, he started Zion Church with fewer than 20 people. A decade later, it was one of the largest unregistered house churches in China, with about 1,500 members and more than 20 pastors. When I visited the church in Beijing in 2018 before the crackdown, the church was meeting on the third floor of an office building with a spacious modern sanctuary and its own coffee shop and Christian bookstore.

The government began threatening to close the church in August 2018 after Jin refused to install security cameras in the sanctuary. Authorities pressured about 100 church members to stop attending. In September, the government officially banned the church, sealing off the church property. Police detained Jin and other leaders for a few hours before releasing them.

This week's roundup was different, said Sean Long, a Zion pastor pursuing a doctorate in theology at Wheaton College. In a coordinated attack, police in cities around the country carried warrants to detain the

leaders and staff. They face charges of "illegal dissemination of religiou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Long said.

Yet Long noted that Jin had long anticipated a crackdown. In 2018, even before the church was shut down, Jin sensed persecution coming and sent Long and his family abroad so an arrest of pastors would not leave the church leaderless. Jin's wife, daughter, and two sons also moved to the US so the government could not use them as leverage.

This year Jin again sensed a storm coming. In one Zoom call with Jin, Long asked what would happen if all Zion's leaders were arrested. Jin replied, "Hallelujah, because a new wave of revival is coming."

The arrests still shocked Long: "It's a brutal violation of … the Chinese Constitution that grants every Chinese citizen freedom of religious belief."

A prayer letter Zion Church released Saturday listed other house churches recently facing persecution: In May, Xi'an police detained pastor Gao Quanfu of Zion's Light Church for allegedly "using superstitious activities to undermine the implementation of justice." In June, authorities imprisoned 10 members of Golden Lampstand Church in Linfen on fraud charges. They sentenced pastor Yang Rongli to 15 years in prison.

With the leaders inside China detained, Long and several other pastors who reside overseas—including in South Korea and Canada—will continue to shepherd Zion Church.

On Sunday, three days after the crackdown began, Zion's 100 church plants—gatherings that number between 5 and 50 people—will meet for worship as they do every week, Long said. Some groups meet inside living rooms, while other rent out private restaurant rooms. They'll watch over Zoom as a Zion pastor who resides in South Korea preaches a sermon on the stoning of Stephen (Acts 7:54–60), the first Christian martyr, followed by a short encouragement and benediction by Long. After that, they'll hold in-person discussions or Bible studies. Some will share a meal together.

“No suffering, no glory—that’s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DNA of the Chinese house church movement through history,” Long said. “We are willing to pay the price to bear the cost of discipleship.”

https://www.christianitytoday.com/2025/10/ezra-jin-zion-house-church-china-detain/?utm_source=chatgpt.com

Detention of Zion House Church Leaders in China (10.12)

Press Statement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October 12, 2025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s recent detention of dozens of leaders of the unregistered house Zion Church in China, including prominent pastor Mingri "Ezra" Jin.

This crackdown further demonstrates how the CCP exercises hostility towards Christians who reject Party interference in their faith and choose to worship at unregistered house churches.

We call on the CCP to immediately release the detained church leaders and to allow all people of faith, including members of house churches, t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without fear of retribution.

https://www.state.gov/releases/office-of-the-spokesperson/2025/10/detention-of-zion-house-church-leaders-in-china?utm_source=chatgpt.com

China Arrests 30 Pastors, Targets Independent Churches in Crackdown (10.17)



조회수 340,627 회 2025. 10. 17

Now let's talk about the latest crackdown in China. Chinese authorities are going after Christians. 30 pastors have been arrested. They belong to the Zion church.

This is an unregistered Christian group in China. Their leader was taken from his home last week. No lawyer has been allowed to see him. The Zion church is not approved by the Chinese government officially. In fact, China is an atheist nation. They say there's freedom to practice your religion, but of course conditions apply. It has to be approved by the Chinese state. There are five state recognized faiths in China.

Catholicism is one of them, but it is controlled by a government body. In the rest of the world, bishops are elected by the Vatican. But in China, they are picked by the Communist Party. This is part of a wider policy called cynicization. It means religion must follow Communist Party values.

And this crackdown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how far China is ready to go to impose these rules on its people.

30 pastors have been detained in China.

Their crime, preaching without the Communist Party's permission. Last week, Chinese authorities raided homes across six provinces. their target, the Zion Church Network, one of the largest unregistered Christian groups in the country. Pastors were arrested in Beijing, Guangshi, and four other provinces, among them, the church's founder, Pastor Ezra Jin Mingri. He was taken from his home in Bahigh.

The charge, illegal use of information networks. A vague accusition that carries a maximum sentence of seven years.

Zion church is what China calls a house church. It's not registered with the government. It operates independently and that's the problem. Under Tinping,

loyalty to the Communist Party comes first, even in matters of faith. China's constitution technically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but critics say the government is rewriting that promise.

〉〉 They call it synicization, reshaping religion to fit communist party ideology.

In practice, this means all clergy must pledge allegiance to the party. Their sermons must not challenge its authority,

and they can only preach online through state approved channels. For churches like Zion that refused to register, the consequences are clear. In 2018, the government shut down their main sanctuary. Since then, Zion has operated underground across nearly 50 cities. They've relied on online worship and prayer groups,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That growth may have triggered this latest wave of arrests. Zion Church now faces its biggest crisis yet. 20 pastors and church leaders are still in detention. No access to lawyers, no clear trial date. Pastor Jyn's family is

deeply concerned. His daughter says he suffered from diabetes and needs medical care.

His wife has called the arrest a brutal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This isn't an isolated case. Other churches have faced similar action this year. Rights groups say this is the most widespread crackdown in over four decades. The arrests have drawn sharp international criticism. US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condemned the move. He said it shows the CCP's deep hostility toward Christians who reject party control. The Senate's Foreign Relations Committee echoed his view, saying people in China should be free to practice religion without fear of government interference.

This crackdown comes amid already strained relations between China and the US, a worsening trade war, export restrictions, talk of 100% tariffs, and now a dispute over faith. China's religious landscape is changing, but not through freedom, through force. And for the 5,000 worshippers of Zion Church,

the message is clear. Worship must come second. Obedience comes first.

Want the facts,

https://www.youtube.com/watch?v=sJqnhwWbrSM

중국, 30명의 목사 체포…독립 교회 겨냥한 단속 강화(10.17)



조회수 340,627 회 2025. 10. 17

이제 중국의 최근 탄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온 교회 소속 목사 30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에서 등록되지 않은 기독교 단체입니다. 지난주 그들의 지도자가 자택에서 연행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온 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무신론 국가입니다.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물론 조건이 따릅니다. 중국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는 국가가 인정하는 다섯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가톨릭도 그중 하나지만 정부 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주교가 바티칸에서 선출되지만,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임명합니다. 이는 '중국화'라는 광범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종교가 공산당 가치관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이 국민에게 이러한 규칙을 강요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최근 사례일 뿐입니다.

중국에서 30 명의 목사가 구금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공산당의 허가 없이 설교한 것입니다. 지난주 중국 당국은 6 개 성에 걸쳐 가택을 급습했습니다. 표적은 국내 최대 비등록 기독교 단체 중 하나인 시온 교회 네트워크였습니다. 베이징, 광시 등 4 개 성에서 목사가 체포되었으며, 그 중에는 교회 설립자인 김명일 목사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북해에 있는 자택에서 연행되었습니다.

혐의는 '정보 네트워크 불법 사용'이다. 최대 7 년형을 받을 수 있는 모호한 혐의다.

시온 교회는 중국에서 '가정 교회'로 불리는 단체다. 정부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바로 이 점이 문제다. 시진핑 집권 하에서 공산당에 대한 충성은 신앙 문제에서도 최우선이다. 중국 헌법은 기술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정부가 이 약속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를 '중국화'라고 부르며, 종교를 공산당 이념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는 모든 성직자가 당에 충성을 맹세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들의 설교는 당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승인한 채널을 통해서만 온라인으로 설교할 수 있다. 시온 교회처럼 등록을 거부한 교회들에겐 결과가 명백하다. 2018 년 정부는 그들의 주요 예배당을 폐쇄했다. 이후 시온 교회는 거의 50 개 도시에 걸쳐 지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와 기도 모임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최근의 대규모 체포 사태를 촉발했을 수 있습니다. 시온 교회는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 명의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여전히 구금 중입니다. 변호인 접견도, 명확한 재판 일정도 없습니다. 진 목사의 가족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딸은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번 체포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잔혹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다. 올해 다른 교회들도 유사한 조치를 받았다. 인권 단체들은 이번이 40 여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탄압이라고 말한다. 이번 체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

조치를 규탄하며, 이는 당의 통제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깊은 적대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상원 외교위원회도 중국 국민이 정부의 간섭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이번 탄압은 이미 긴장된 미중 관계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악화되는 무역 전쟁, 수출 제한, 100% 관세 논의에 이어 이제는 신앙을 둘러싼 분쟁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의 종교 지형은 변화하고 있지만, 자유가 아닌 강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온 교회 5,000 명의 신자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배는 두 번째입니다. 복종이 먼저입니다.

북경시온교회 목사 김명일 체포…미국 “종교 박해 중단하라” 촉구 (10.13)

추광자 보도 2025-10-13 국제 공유

중국 시온교회(Zion Church) 창립자이자 목사인 진밍리(Ezra Jin Mingri)가 지난 금요일(10일) 광시(廣西) 롄하이(北海)에서 공안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약 30명의 목회자와 교인들도 경찰에 연행되었다. 미국 종교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 Aid) 창립자 푸시추(傅希秋)는 이번 사건이 1980년대 이후 중국 도시 독립 가정교회에 대한 최대 규모의 탄압이라고 밝혔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 공산당의 종교 자유 침해를 규탄하며 당국에 모든 구금자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명일 목사는 지난 금요일 밤 북해 자택에서 체포됐으며, 가족들은 아직까지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그와 동시에 구금된 이들은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최소 5개 성시(省市)의 교회 지도자들이다. 미국에 있는 시온교회(Sion Church)의 숀 롱(Sean Long) 목사는 교회 동역자들이 온라인 채팅 그룹에 경찰이 교회에 진입하는 사진과 영상을 게시했으며, 체포된 동역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불법 종교 콘텐츠 유포’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이후 급성장… 체포는 미중 갈등의 협상 카드로

김명일의 아내 류춘리(劉春麗)는 중국 당국이 김명일의 영향력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류춘리와 세 자녀는 일찍이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세 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다. 31세 장녀 그레이스 진 드렉셀(Grace Jin Drexel)은 미국 상원에서 근무 중이다. 그녀는 이번 중국 당국의 탄압이 어떤 계기로 촉발됐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사건이 교회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면서 중국 공산당 통치에 잠재적 도전이 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믿는다. “시온교회는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이는 정부를 분노하게 했다.”

김명일 목사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의 체포는 미중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역 협상이 격화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정상회담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이 사건은 미중 간 힘겨루기의 잠재적 카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12일 중국 측의 행동을 규탄하며, 중국이 즉시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를 탄압하는 것은 당국이 종교 자유에 대해 적대적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목회 40개 이상 도시로 확장

56세인 김명일은 헤이룽장(黑龍江)에서 태어나 1989년 베이징 학생 운동에 참여했으며, 6·4 사건 이후 기독교를 접하기 시작했다. 2007년 베이징에서 시온교회(錫安教會)를 설립했다. 시온교회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이른바 '가정교회' 또는 '지하교회'로, 정통 기독교 교리를 따르며 신도들은 전국 40개 이상의 도시에 퍼져 있다. 교회가 2018년 경찰의 급습을 받고 예배당이 봉쇄된 후, 김명일은 온라인 목회로 전환해 100여 개의 분점을 설립했으며, 온라인 기도 모임 인원은 때로 1만 명에 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혼합형 모델이 활발히 발전한 것이 중국 당국을 불안하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

北京抓捕錫安教牧師金明日　美國促北京停止宗教迫害

- **追光者報道 2025-10-13 國際**

中國錫安教會(Zion Church)創辦人、牧師金明日(Ezra Jin Mingri)上周五(10日)在廣西北海被公安拘留，約30名牧者和教友也被警方帶走。美國宗教組織「對華援助協會」(China Aid)創辦人傅希秋(Bob Fu)表示，今次是自1980年代以來，中國對城市獨立家庭教會規模最大的鎮壓，國務卿盧比奧(Marco Rubio)也譴責中共侵犯宗教自由，要求當局立即釋放所有被拘留者。

美聯社報道，金明日上周五晚在北海住所被捕，家屬至今尚未收到正式通知，與他同時被拘留的，還有數十名在北京、以及中國至少五個其他省市的教會領袖。身在美國的錫安教會牧師Sean Long表示，有教會同工在線上聊天群組，發布警察進入教會的照片和影片，而被捕同工可能會面臨「透過互聯網非法傳播宗教內容」等指控。

疫情後迅速壯大 被捕或成中美角力籌碼

金明日的妻子劉春麗(Chunli Liu，音譯)認為，中方害怕金明日的影響力。劉春麗與三名子女早年已移居美國，3名子女全部是美國公民，31歲長女Grace Jin Drexel在國會參議院工作，她不確定中方這次鎮壓的導火線，但相信事件可能與教會影響力日漸壯大，對中共統治構成潛在挑戰有關，「錫安教會在疫情後爆炸性成長，這激怒了政府」。

由於金明日與在美家人關係密切，他的被捕可能成為中美關係的新變數。在貿易談判升溫、美國總統特朗普與中共總書記習近平舉行峰會前景未明之際，事件更可能成為中美角力的潛在籌碼。美國國務卿盧比奧(Marco Rubio)昨(12日)譴責中方行動，要求中方立即釋放被拘留者，並保障信徒可自由敬拜，又指中共打壓家庭教會，反映當局對宗教自由充滿敵意。

線上牧養超過40個城市

56歲的金明日在黑龍江出生，曾經參與1989年北京學運，六四事件後開始接觸基督教，2007年在北京創立錫安教會。錫安教會未向當局登記，屬於所謂「家庭教會」或「地下教會」，遵循正統基督教教義，信徒遍布全國超過40個城市。教會在2018年遭警方突襲、禮拜堂被查封後，金明日轉為線上牧養，設立百多個分支據點，線上禱告小組人數有時會高達1萬人。這種混合模式蓬勃發展，可能就是令中國當局深感不安的原因。

https://photonmedia.net/beijing-detains-prominent-underground-pastor/?utm_source=chatgpt.com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10.14)

입력 2025.10.14 19:07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 중, 비인가 시온교회 목사 30명 체포
- 펜데믹 시절 온라인으로 1만명 모아
- 미국 종교의 자유 요구 두고 갈등 예상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비롯해 30 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 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 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 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 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 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 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 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 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 · 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 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 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 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 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 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 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 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 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 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19 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 · 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41907001

中, 지하교회 목사 수십명 체포…美국무 "즉각 석방하라"(10.13)

'미승인 가정교회' 시온교회 진밍르 목사 등 30 여명 구금

- 이정환 기자, 정은지 특파원



2025.10.13 오후 05:42 (서울 · 베이징=뉴스 1)

중국 최대 규모의 지하 교회 중 한 곳의 목사 수십 명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13 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비공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설립자 진밍르 목사(56)가 10 일 저녁 중국 남부의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교회 소속 목사들과 구성원 30 여명도 비슷한 시기에 붙잡혔다고 진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과 교회 대변인 션 룽이 밝혔다.

진 목사는 '정보망 불법 사용' 혐의로 베이하이시 제 2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혐의로는 최대 7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진 목사의 지지자들은 목사들이 인터넷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종교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동북부지방 출신의 조선족으로 알려진 진 목사는 베이징대학을 졸업했고, 1989 년 톈안먼(천안문) 사태를 목격한 뒤 기독교로 개종해 2008 년 시온교회를 세웠다.

시온교회는 2018 년 베이징에 있는 예배당이 폐쇄됐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줌 설교와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빠르게 회원을 늘렸다. 롱 대변인에 따르면 시온교회는 약 50 개 도시에 걸쳐 5000 여 명의 정기 예배자를 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2018 년 이후 기독교인을 겨냥한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었으며, 중국 최고 종교규제 기관이 성직자의 허가 없는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 '외국과의 공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단속 행위를 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 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고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며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등록 교회는 종교 활동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 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교회 목사 구금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지하 교회 단속 건과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접수한 건은 없다"고 밝혔다.

jwlee@news1.kr

https://www.news1.kr/amp/world/asia-australia/5939433

中 시온교회 지도자 30여 명 구금 · 실종… 10월 9일 이후 행방 묘연(10.14)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hgroh@cdaily.co.kr)



당국자들에게 금지당하기 전, 시온교회 주일예배 광경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공안이 2025 년 10 월 초, 전국 각지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체포 · 구금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이징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와 사역자 약 30 명이 10 월 9 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된 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시온교회 목회팀은 11 일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2025 년 10 월 초,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10 월 9 일 이후 시온교회 소속 목회자와 사역자 30 명가량이 전국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며,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온교회는 2007 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가정교회로, 2018 년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 이후에도 전국 40 여 개 도시에서 소그룹 예배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시온교회 담임 진밍르 목사가 체포된 데 이어 지난 9 일 이후 시온교회 관계자 30 여 명의 실종 구금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1989 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베이징 시온교회를 개척해 수천 명의 신자를 이끌며 중국 교계의 대표적 지도자로 부상했지만, 공산당의 종교정책을 비판해온 탓에 오랫동안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마크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시온교회’의 목회자와 구성원 수십 명을 체포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시온교회 담임목사 진밍르(明日, Ezra Jin)의 구금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즉시 모든 구금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신앙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은 국제사회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사실상 지하로 몰아넣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단체는 “중국 내 가정교회 약 6 만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중인데, 이번 시온교회 사태는 그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온교회 목회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가 이번 고난을 통해 더 단단히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2361#share

미중 갈등 고조 속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성명 발표(10.12)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 목사 등 기독교인 수십명을 구금했다면서 즉시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 공안이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목사 약 30명과 구성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으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켜본 뒤 기독교인이 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신도를 늘려 나가면서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됐다.

중국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입장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jhch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2045000071

루비오 美국무 “中, 구금한 목사들 즉각 석방하라”(10.13)

관련이슈디지털기획

입력 : 2025-10-13 00:07:11 수정 : 2025-10-13 00:07:10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中, 시온교회 목사 30명 등 구금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EPA연합뉴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 공안은 자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를 단속하면서 목사 약 30명과 신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 출신이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인이 됐고, 이후 가정교회를 세워 신도를 늘려가면서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2510309

목사 구금 사건 두고 갈등 빚는 미 · 중(10.15)

미국 “예배 자유 보장” 촉구에, 중국 측 “내정 간섭” 일축



린젠 대변인과 루비오 장관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를 향해 “구금한 목사들을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하자, 중국 측이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종교 사무를 관리하며, 시민의 종교 자유와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종교 문제를 빌미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시온교회 진밍르 목사를 비롯해 30여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중국은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예배나 설교 등 종교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달 발표된 ‘종교 교직원의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라 온라인 예배나 설교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 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5

美 국무부 "中, 가정교회 탄압 중단하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 규탄 (10.13)

루비오 장관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 진밍르(에즈라 진)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당국자들에게 금지당하기 전, 시온교회 주일예배 광경 ©한국 순교자의 소리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 공안의 대규모 가정교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크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들과 구성원 수십 명을 체포한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특히 시온교회 담임목사인 밍리(明日, Mingri) '에즈라' 진(Jin)의 구금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당의 통제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모든 신앙인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즉각 구금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최근 시온교회 네트워크를 겨냥한 단속을 벌여 목사 약 30명과 신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온교회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인가(非認可) 가정교회로, 오랜 기간 정부의 감시 대상이 돼왔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진밍리, Ezra Jin) 목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1989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베이징 시온교회를 개척해 수많은 신자를 이끌며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왔으나, 공산당의 종교 통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중국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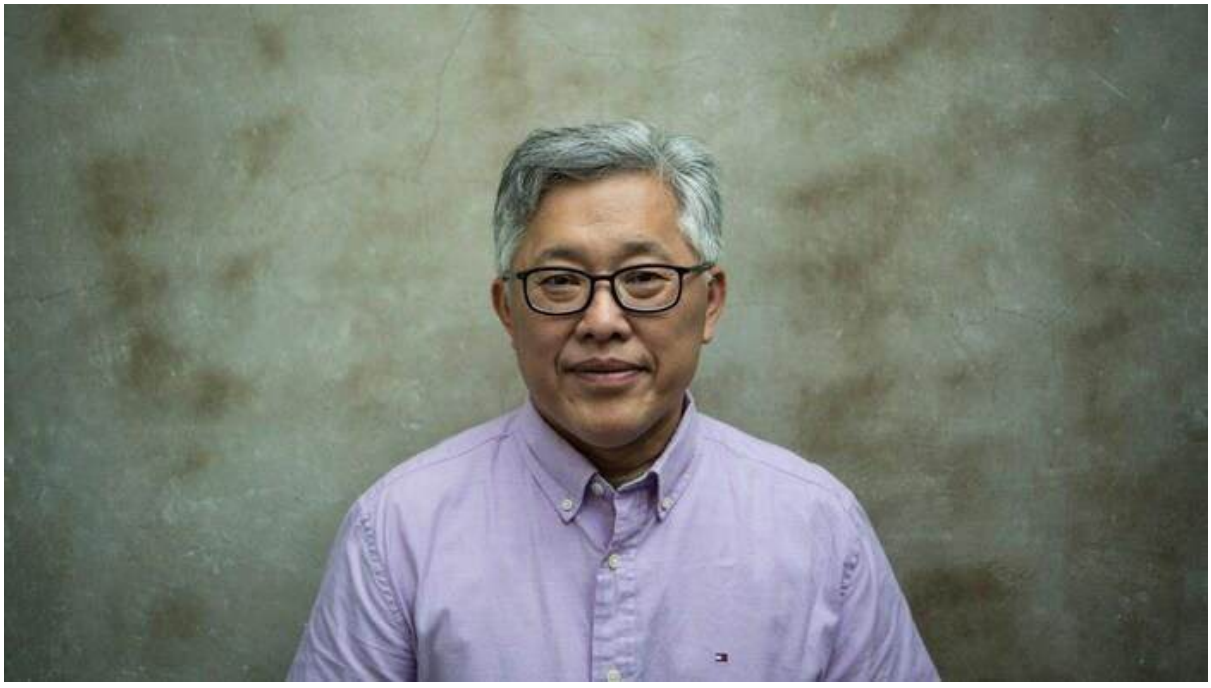
미 국무부는 이번 성명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은 국제사회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28920/20251013/%E7%BE%8E-%EA%B5%AD%EB%AC%B4%EB%B6%80-%E4%B8%AD-%EA%B0%80%EC%A0%95%EA%B5%90%ED%9A%8C-%ED%83%84%EC%95%95-%EC%A4%91%EB%8B%A8%ED%95%98%EB%9D%BC-%EC%8B%9C%EC%98%A8%EA%B5%90%ED%9A%8C-%EC%A7%80%EB%8F%84%EC%9E%90-%EA%B5%AC%EA%B8%88-%EA%B7%9C%ED%83%84.htm

중국 6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여 명 체포 구금당해(10.15)

가정교회 네트워크 시온교회 지도자 김명일 목사 등

김현성 기사입력 2025/10/15 [09:51]



▲ 중국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김명일(진밍그리) 담임목사. 조선족 출신이다. 경찰에 구금됐다. ©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중국 6 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 여 명이 경찰에 체포 구금되면서 중국 내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박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지난 10 월 14 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지난 10 월 9 일부터 6 개 도시에서 중국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 김명일(진밍그리) 목사를 포함한 30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했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비영리 단체 차이나에이드를 인용해 지난 10 일 10 여 명의 경찰이 광시성 베이하이에 있는 김명일(진밍그리) 담임목사의 아파트에 침입해 밤새도록 집을 수색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또한 선전 공항에서 한 명의 목사를 체포해 구금했다.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김명일 목사의 딸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 년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있는 시온교회당을 폐쇄했다.”며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전국의 소그룹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시온교회 네트워크에는 40 개 도시에 걸쳐 거의 10,00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목회자 체포 구금은 이러한 성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점점 더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예배를 중단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명일 목사는 중국 동북부 출신의 조선족으로 천안문 광장 학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정부에 환멸을 느낀 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다.

김 목사는 지난 2007 년에 20 명 미만의 인원으로 시온교회를 시작했으며, 10 년만에 1,500 여 명의 교인과 20 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미등록 가정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2018 년 8 월 진씨가 성소에 보안 카메라 설치를 거부하자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100 여 명의 교인들에게 참석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9 월,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금지하고 교회 재산을 봉쇄했다. 경찰은 김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몇 시간 동안 구금한 뒤 석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6 개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지도자들을 “인터넷을 통한 종교 정보의 불법 유포”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이에 대해 김명일 목사는 자신을 비롯한 시온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휘튼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시온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숀 롱(Sean Long 목사와의 통화에서 ‘시온의 모든 지도자들이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묻자 “할렐루야,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 헌법에는 “모든 중국 시민에게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부여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한편 시온교회가 지난 11 일에 공개한 기도책자에는 최근 박해를 받고 있는 다른 가정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기도책자에 의하면, 지난 5 월, 시안 경찰은 시온빛교회의 가오취안푸 목사를 "미신적 활동을 통해 정의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금했다.

지난 6 월에는 린펀에 있는 황금 등잔대 교회 신자 10 명을 사기 혐의로 수감했으며, 양룽리 목사에게는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탄압이 시작됐지만 5 명에서 50 명 정도 모이는 시온교회가 개척한 100 여 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척교회들은 가정집 거실과 개인 식당 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롱 목사와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목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newspower.co.kr/62492

"체포된 중국 가정교회 목회자들 위한 기도 당부", CBS 노컷뉴스(10.17)

- CBS 노컷뉴스 오요셉 기자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30 여 명 체포
  KWMA·한국로잔위, 기도 요청문 발표

[앵커]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최대 가정교회 지도자인 조선족 김명일 목사와 교회 지도자 30 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로잔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성도들에게 기도와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와 교회 지도자 30 여 명이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됐습니다.

시온교회는 2007 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로, 2018 년 폐쇄된 이후엔 전국으로 흩어져 중국 최대 규모의 도시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과 소그룹 모임을 중심으로 성장하며 전국 40 개 도시에 100 개가 넘는 개척 교회를 두고 1 만 여 명의 성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는 "시온교회는 중국 내에서 복음적 신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정교회 연합체"라며 "김명일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의 구금 소식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WMA 는 "이번 일을 통해 중국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을 지켜나가길 소망한다"며 "종교 공동체의 평화로운 예배와 교제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명일 목사와 구금된 지도자들의 평강과 건강을 위해, 가족들의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중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KWMA 는 "교회는 언제나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며 중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더욱 깊이 연대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로잔위원회도 미국에 거주 중인 김명일 목사 가족들이 전해온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김 목사의 가족들은 "이미 구금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기소와 수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기적적인 석방과 법률 자문 지원, 건강 등을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잔위는 "교회사에서 목도해왔듯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왔다"며 "이번 사태가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https://christian.nocutnews.co.kr/news/6414280

KWMA, 中 구금된 시온교회 에즈라 진 목사 위해 기도 요청 (10.17)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입력 : 2025.10.17 12:02

모든 사람이 신앙과 예배의 자유 누리게 되길"



▲중국 시온교회 에즈라 진(김명일, 진밍리) 목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차이나에이드

한국세계선교협의회(이사장 주승중 목사, 사무총장 강대흥 목사, 이하 KWMA)가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의 에즈라 진(김명일, 진밍리) 목사와 지도자 약 30 명이 구금된 사건과 관련해 기도를 요청했다.

KWMA 는 17 일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 에즈라 진(김명일) 목사와 교회 지도자 약 30 명이 구금된 소식을 접하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중국 정부는 지난 10 월 10 일경, 베이징과 여러 지역에서 시온교회 지도자들을 동시에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는 중국 내에서 복음적 신앙을 지켜온 대표적인 가정교회 연합체로, 2007 년 창립 이후 온라인과 소그룹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 일이 중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했다.

KWMA 는 "모든 사람이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한다"며 "이는 인류 보편의 권리이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을 통해 중국교회가 더욱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기를 소망한다"며 "중국 정부가 종교 공동체의 평화로운 예배와 교제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되도록 기도한다"고 전했다.

KWMA 는 이번 사안을 두고 다섯 가지 기도제목을 제시했다. 이는 ▲에즈라 진 목사와 구금된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고, 건강이 지켜지며 불의한 대우로부터 보호받도록 ▲ 그들의 가족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경제적 · 정서적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중국교회와 성도들이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고난보다 사랑으로 반응하며 신앙이 더욱 순전하게 세워지도록 ▲중국 정부와 사회가 신앙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종교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이 열리도록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중국교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에 함께 응답하도록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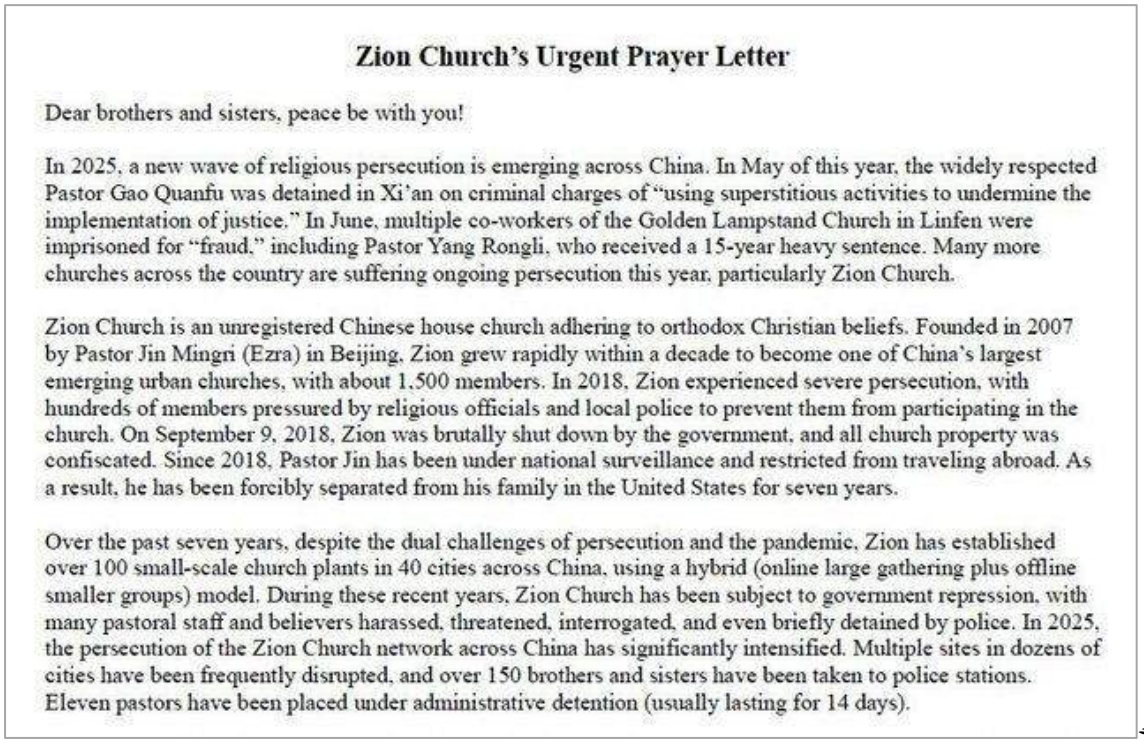
KWMA 는 "교회의 역사는 언제나 고난 속에서 더욱 단단해졌다"며 "이번 일을 통해 중국교회와 세계교회가 더욱 깊이 연대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 이재훈 목사 "체포된 中 가정교회 지도자 30 여 명 위해 기도해 달라"
- 中 당국, 구금된 목회자에 성경 · 가족 서신 전달 금지
- 교인 체포, 교회 폐쇄, 계좌 동결… 中, 가정교회에 대한 압박 강화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71299

中 정부, 전국 시온교회 급습… 지도자 30여명 체포, 국민일보 (10.15)

- 최근 여러 도시서 동시다발 수색
- 조직화된 탄압 확대 움직임 촉각
-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 온라인 · 소그룹 모임 통해 급성장
- 올해 20곳 폐쇄 · 150명 구금 시련



Zion Church's Urgent Prayer Letter

Dear brothers and sisters, peace be with you!

In 2025, a new wave of religious persecution is emerging across China. In May of this year, the widely respected Pastor Gao Quanfu was detained in Xi'an on criminal charges of "using superstitious activities to undermine the implementation of justice." In June, multiple co-workers of the Golden Lampstand Church in Linfen were imprisoned for "fraud," including Pastor Yang Rongli, who received a 15-year heavy sentence. Many more churches across the country are suffering ongoing persecution this year, particularly Zion Church.

Zion Church is an unregistered Chinese house church adhering to orthodox Christian beliefs. Founded in 2007 by Pastor Jin Mingri (Ezra) in Beijing, Zion grew rapidly within a decade to become one of China's largest emerging urban churches, with about 1,500 members. In 2018, Zion experienced severe persecution, with hundreds of members pressured by religious officials and local police to prevent them from participating in the church. On September 9, 2018, Zion was brutally shut down by the government, and all church property was confiscated. Since 2018, Pastor Jin has been under national surveillance and restricted from traveling abroad. As a result, he has been forcibly separated from his family in the United States for seven years.

Over the past seven years, despite the dual challenges of persecution and the pandemic, Zion has established over 100 small-scale church plants in 40 cities across China, using a hybrid (online large gathering plus offline smaller groups) model. During these recent years, Zion Church has been subject to government repression, with many pastoral staff and believers harassed, threatened, interrogated, and even briefly detained by police. In 2025, the persecution of the Zion Church network across China has significantly intensified. Multiple sites in dozens of cities have been frequently disrupted, and over 150 brothers and sisters have been taken to police stations. Eleven pastors have been placed under administrative detention (usually lasting for 14 days).

중국 베이징 시온교회가 에즈라 진 목사가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1 일(현지시간) 발표한 기도 편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제공

중국 정부가 최근 베이징 시온교회의 에즈라 진(김명일 · **사진**) 목사를 포함한 30 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체포했다. 중국 공산당의 교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구금 사태는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된 탄압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14 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와 비영리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 Aid)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0 일(현지시간) 10 명 이상의 공안이 중국 남부 광시성 베이하이에 있는 진 목사의 아파트를 급습해 밤새 수색한 뒤 진 목사를 수갑 채워 연행했다. 공안은 인터넷을 통한 종교적 불법 정보 배포 혐의의 구금영장을 소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족 출신인 진 목사는 천안문 사태 이후 기독교인이 됐다. 2007 년 20 명 미만으로 시작한 베이징 시온교회는 10 년 만에 1500 명 규모의 중국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로 성장했다. 2018 년 9 월 중국 정부가 교회를 공식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교회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소그룹 모임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급성장했다. 현재 40 개 도시에 100 개 넘는 개척교회를 두고 1 만여명이 참여하는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네트워크로 확대됐다.

그러나 올해에만 시온교회 사역지 20 여곳이 폐쇄됐고 150 명 이상이 구금됐다. 진 목사는 이번 체포를 오래전부터 예견했다. 2018 년부터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 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온교회는 체포 다음 날 기도 편지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 편지는 “시온교회와 모든 중국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원해 달라”며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한국로잔위원회도 이날 한국교회에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교회 역사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는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증명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국교회가 다시금 겪는 고난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로잔위원회는 구금된 목사들의 건강과 평안, 기적적인 석방, 변호사 접견 허용, 교도소 내 안전과 증인의 삶, 가족들의 심적 · 재정적 어려움 해결 등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전했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 정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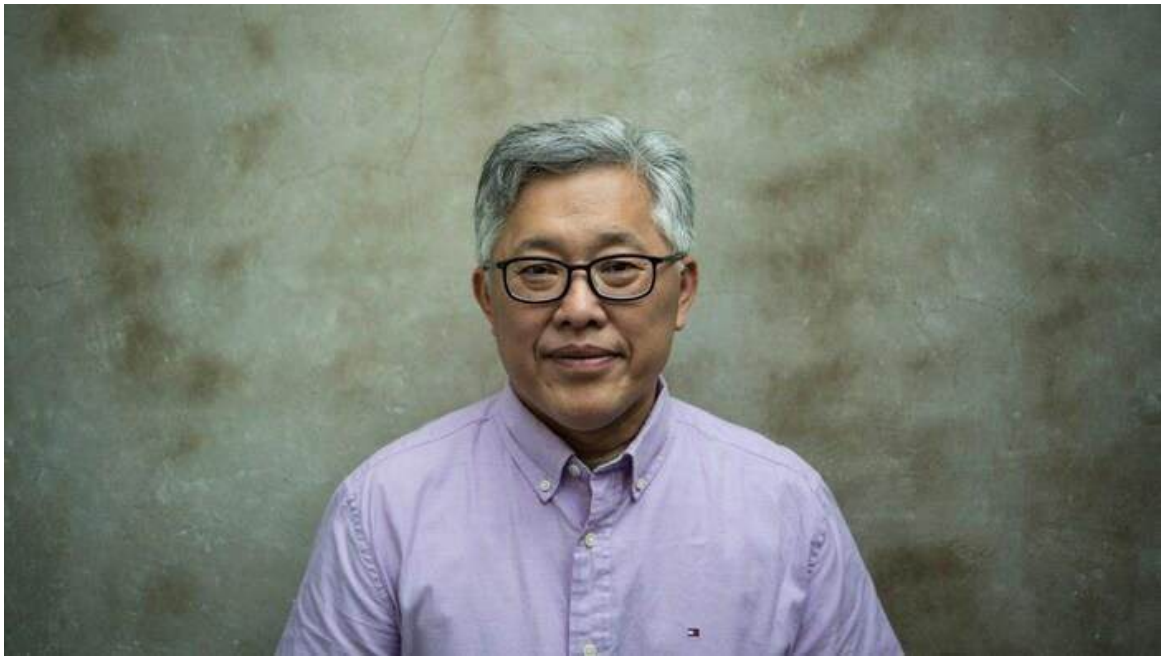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0426384

중국 6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여 명 체포 구금당해(10.15)

가정교회 네트워크 시온교회 지도자 김명일 목사 등

김현성 ✉ 기사입력 2025/10/15 [09:51]



▲ 중국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김명일(진밍그리) 담임목사. 조선족 출신이다. 경찰에 구금됐다. ©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중국 6 개 도시 가정교회 지도자 30 여 명이 경찰에 체포 구금되면서 중국 내 기독교인에 대한 새로운 박해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가 지난 10 월 14 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지난 10 월 9 일부터 6 개 도시에서 중국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 김명일(진밍그리) 목사를 포함한 30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체포 구금했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비영리 단체 차이나에이드를 인용해 지난 10 일 10 여 명의 경찰이 광시성 베이하이에 있는 김명일(진밍그리) 담임목사의 아파트에 침입해 밤새도록 집을 수색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또한 선전 공항에서 한 명의 목사를 체포해 구금했다.

미국 메릴랜드에 거주하는 김명일 목사의 딸 그레이스는 아버지의 체포 소식을 듣고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8 년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 있는 시온교회당을 폐쇄했다."며 "그러나 팬데믹 이후 교회는 전국의 소그룹에 대한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통해 빠르게 성장했다."고 밝혔다.

시온교회 네트워크에는 40 개 도시에 걸쳐 거의 10,000 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목회자 체포 구금은 이러한 성장 때문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점점 더 교회를 표적으로 삼아 예배를 중단하고 목회자와 교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명일 목사는 중국 동북부 출신의 조선족으로 천안문 광장 학살로 인해 중국 공산당 정부에 환멸을 느낀 후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희망을 교회에서 찾았다.

김 목사는 지난 2007 년에 20 명 미만의 인원으로 시온교회를 시작했으며, 10 년만에 1,500 여 명의 교인과 20 여 명의 목회자가 사역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미등록 가정교회 중 하나로 성장했다.

중국 정부는 2018 년 8 월 진씨가 성소에 보안 카메라 설치를 거부하자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기 시작했다. 당국은 100 여 명의 교인들에게 참석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9 월, 정부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금지하고 교회 재산을 봉쇄했다. 경찰은 김 목사를 비롯한 목회자들을 몇 시간 동안 구금한 뒤 석방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6 개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지도자들을 "인터넷을 통한 종교 정보의 불법 유포" 혐의로 체포해 구금했다.

이에 대해 김명일 목사는 자신을 비롯한 시온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 목사는 미국의 휘튼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시온교회 지도자 중 한 명인 숀 롱(Sean Long 목사와의 통화에서 '시온의 모든 지도자들이 체포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묻자 "할렐루야,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중국 헌법에는 “모든 중국 시민에게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부여한다.”로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한편 시온교회가 지난 11 일에 공개한 기도책자에는 최근 박해를 받고 있는 다른 가정교회들을 소개하면서 기도를 당부하고 있다.

기도책자에 의하면, 지난 5 월, 시안 경찰은 시온빛교회의 가오취안푸 목사를 "미신적 활동을 통해 정의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금했다.

지난 6 월에는 린펀에 있는 황금 등잔대 교회 신자 10 명을 사기 혐의로 수감했으며, 양룽리 목사에게 는 징역 15 년을 선고했다.

탄압이 시작됐지만 5 명에서 50 명 정도 모이는 시온교회가 개척한 100 여 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개척교회들은 가정집 거실과 개인 식당 방을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롱 목사와 한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에 거주하는 다른 여러 목회자들이 목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logos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9985

이재훈 목사, 중국 정부에 체포된 시온교회 리더 에스라 진 목사 석방 촉구 (10.14)

한국 교회가 함께 기도해줄 것 요청

김현성 2025/10/14 [16:33]

중국정부가 10 월 10 일 경 중국 가정교회 리더 에스라 진 목사를 비롯한 베이징 시온교회 리더 30 여 명을 체포한 가운데 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 이재훈 목사(한국로잔위원회 의장, 온누리교회) ©뉴스파워

에스라 진 목사는 조선족 출신의 중국 도시 가정교회를 세운 리더로 2007 년에 세운 베이징 시온교회가 2018 년 정부에 의해 폐쇄된 이후 전국적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으며, 중국 40 개 도시에 교회가 개척되어 1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이는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에스라 진 목사는 사역을 하던 중국 광시좡족자치구(广西壮族自治区) 베이하이(北海)에서 체포됐다. 이 사태를

예견한 에스라 진 목사는 몇 년 전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이번 체포에 대해 미국 국무성은 중국 정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이다.

이재훈 목사는 이번 체포가 지난 40 년 동안 도시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조직적 단속이라며 “이미 최근 미국 정부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즈라 진 목사의 체포는 더 조직적이고 계획된 탄압의 신호라고 볼 수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해 왔듯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왔다.”며 “이번 중국교회가 다시 겪는 고난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며 에스라 진 목사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에스라 진 목사의 가족들은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전하며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1.저희 아버님과 감옥에 계신 목사님들, 동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건강과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지금 교도소 독방에 개별적으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보거나 대화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와 몇몇 분들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셔서 저희가 매우 걱정됩니다.

2.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석방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중국 정부는 이미 구금영장을 발부한 상태인데, 이는 대개 기소가 확정되고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적인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3.현재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맡는 것이 매우 위험하므로, 변호사들에게도 보호와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정부가 현재 변호사와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4.교도소 안에서 목사님들의 보호와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며,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걱정으로 병들어가고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그분들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위한 우리의 지원 활동에 지혜가 있기를, 우리의 노력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https://www.newspower.co.kr/62487

전국 6개 도시 동시 급습… 中 1만명 시온교회 리더 30명 구금, 국민일보(10.14)

입력:2025-10-14 14:35

한국로잔위원회, 한국교회에 기도 요청



2018 년 에즈라 진 시온교회 목사.
크리스채너티투데이 캡처

중국 정부가 최근 베이징 시온교회의 에즈라 진(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30 여명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전국적으로 체포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있었는데 이번 에즈라 진 목사의 체포는 더 조직적이고 계획된 탄압의 신호라는 분석이다.

14 일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와 비영리단체 차이나에이드(ChinaAid)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10 일(현지시간) 10 명 이상의 경찰이 광시성 베이하이에 있는 진 목사의 아파트에 침입해 밤새 수색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경찰은 지난달 26 일자로 유효한 '수배자 목록'과 '인터넷을 통한 종교적 불법 정보 배포' 혐의의 구금 영장을 소지하고 있었다.

조선족 출신인 에즈라 진 목사는 천안문 광장 학살 이후 기독교인이 됐다. 2007 년 20 명 미만으로 시작한 베이징 시온교회는 10 년 만에 1500 명 규모의 중국 최대 미등록 가정교회로 성장했다. 2018 년 9 월 중국 정부가 교회를 공식 폐쇄하고 재산을 몰수했지만 팬데믹 이후 교회는 라이브 스트리밍과 소그룹 모임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오히려 급성장했다. 현재 40 개 도시에 100 개가 넘는 개척교회를 두고 1 만여명이 참여하는 중국 최대 도시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가 됐다.

그러나 올해만 시온교회 사역지 20 여곳이 폐쇄됐고 150 명 이상이 구금됐다. 5 월에는 가오취안푸 목사, 6 월에는 왕릉궈 목사가 각각 미신 활동 및 우상숭배 혐의로 구금 또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 목사는 이번 체포를 오래전부터 예견했다. 2018 년부터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 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체포된 이들은

독방에 개별 갇혀 서로 보거나 대화할 수 없는 상태다. 중국 정부는 이미 구금 영장을 발부해 기소 확정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단속 사흘 후 시온교회의 100 개 개척교회는 주일을 맞아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다. 거실이나 레스토랑 방에서 모인 이들은 줌으로 한국인 목사의 설교를 들었다. 이날 설교는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에 관한 내용이었다.

시온교회는 체포 다음 날 기도 편지를 통해 전 세계 교회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 편지는 "시온교회와 모든 중국 가정교회 형제자매들을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원해달라"며 "이 고난의 잔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이재훈 온누리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한국로잔위원회도 14 일 한국교회에 이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목사는 "교회 역사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어 왔다"며 "중국교회와 한국교회 역사에서도 증명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중국교회가 다시 겪는 고난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며 "이것은 자신의 구금을 예견했던 에즈라 진 목사가 늘 해왔던 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국로잔위원회가 전한 기도 제목은 구금된 목사들의 건강과 평안, 기적적인 석방, 변호사 접견 허용, 교도소 내 안전과 증인의 삶, 가족들의 심적 · 재정적 어려움 해결 등이다. 미국 국무부도 중국 정부에 석방을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아영 기자 singforyou@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8823242

중국 최대 지하교회 이끌던 조선족 목사 김명일 전격 체포, 경향신문(10.14)

입력 2025.10.14 19:07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 중, 비인가 시온교회 목사 30명 체포
- 펜데믹 시절 온라인으로 1만명 모아
- 미국 종교의 자유 요구 두고 갈등 예상



중국 정부가 조선족 김명일(중국어 발음 진밍르 · 영어명 에즈라 진) 목사를 비롯해 30 여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전격 체포했다.

14 일 유권망에 따르면 체포는 지난 9~11 일 진행됐다. 시온교회를 이끄는 김 목사는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자택에서 구금됐다고 미국에 거주하는 딸 그레이스 진이 전했다.

베이징, 선전, 상하이 등 전국 각지에서 시온교회의 다른 목사들 30 여명이 체포됐다. 이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정보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40 년 동안 기독교 인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체포라고 전했다.

시온교회는 2007 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다. 현재 중국 내 40 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 명이 온라인에 접속해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 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당국에 공식 허가받은 교회 외 가정 등에서 설교 · 예배 등을 벌이는 종교활동을 불법화하는 종교 지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발표한 '종교 교직원을 위한 온라인 행동 규범'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예배, 설교는 불법이 된다.

개신교계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출신이며 올해 56 세인 김 목사는 베이징대를 졸업했으며 1989 년 톈안먼 항쟁을 계기로 입교했다. 중국 공인교회의 옌칭신학교를 거쳐 2007 년 미국에서 신학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해 복음주의 성향의 시온교회를 이끌었다. 베이징에서 단기간에 600 명을 신도를 모아 최대 가정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개신교계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2011 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를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결정할 필요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고 공개 비판했다.

김 목사는 중국 공안 당국의 표적이 됐으며 2018 년 베이징을 떠났다. 그는 목회자들을 해외로 보내 교회가 지도자 없이 남지 않도록 대비했고, 아내와 자녀들도 미국으로 이주시켜 6 년 넘게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왔다. 중국 당국은 2019 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폐쇄하고 김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김 목사는 이후 소규모 그룹을 이끌며 목회 활동을 벌이다 펜데믹 기간 온라인을 통해 1 만명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코로나 19 를 거치며 개신교뿐만 아니라 불교, 도교 사원 방문객도 늘어난 바 있다.

김 목사의 체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종교 정책은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 비교적 안전한 전통 종교로 여겨져 온 불교와 도교 사원을 상대로는 염주판매 등 상업화에 제동을 걸고 있으며, 티베트 불교나 이슬람교에서는 ‘중국화’를 강조하고 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10141907001

中, 가정교회 목회자 수십명 체포…가족들, 전 세계 교회에 기도 요청(10.14)

기자명최상경 기자 입력 2025.10.14 19:26



▲중국의 한 '가정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국인.(워싱턴포스트 사진 캡처)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중국 당국에 체포된 베이징 시온교회 김명일(에즈라 진) 목사와 동료 목회자들을 위해, 가족들이 전 세계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목사의 가족은 구금된 목회자들이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석방과 보호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13 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벌이며 목회자 약 30 명과 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목사는 지난 10 일께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에서 사역 중 체포됐다. 그는 2007 년 베이징에 시온교회를 세워 도시 복음주의 운동을 이끌었으며, 2018 년 중국 정부의 폐쇄 조치 이후에도 전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우는 일을 계속했다. 그 결과 현재 전국 40 개 도시에 1 만 명 이상의 성도가 예배하는 중국 최대 규모 도시 복음주의 교회 네트워크 중 하나로 성장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가정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를 강화해 왔는데, 이번 김 목사의 체포는 더욱 조직적이고 계획된 탄압의 신호로 해석된다. 김 목사는 이를 예견하고 수년 전 가족을 미국으로 피신시켰다.

가족이 전한 기도 제목에 따르면, 김 목사와 동료 목회자들은 독방에서 서로를 볼 수 없고, 일부는 건강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들은 "목회자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며 "중국 정부가 이미 구금영장을 발부해 기소와 수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지만, 기적적인 석방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변호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률 자문을 진행 중이지만, 중국 정부가 면회조차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족 측 설명이다.

가족들은 "걱정으로 병들어가고 재정적 압박을 겪고 있는 목회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지혜와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태 직후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김명일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사)는 이번 사건을 중국교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각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4 일 담화문을 통해 "교회의 역사에서 우리가 목도해 왔듯이, 고난은 하나님의 전략이며 교회를 각성시키고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교회의 역사에서도, 한국교회의 역사에서도 증명된 일"이라며 "이번 중국교회가 다시 겪는 고난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는 전환점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자신의 구금을 예견했던 김명일 목사가 늘 해 왔던 말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선교를 위한 교회 연합에도 큰 힘을 쏟아온 인물이다. 한국로잔위원회는 "모든 한국 교회가 김 목사와 동료 목회자들의 석방, 가족의 보호, 그리고 고난 속 중국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415

中 시온교회 지도자 30여 명 구금 · 실종… 10월 9일 이후 행방 묘연, 기독일보(10.14)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hgroh@cdaily.co.kr)



당국자들에게 금지당하기 전, 시온교회 주일예배 광경 ©한국 순교자의 소리

중국 공안이 2025 년 10 월 초, 전국 각지에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일제히 체포 · 구금하는 대규모 단속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베이징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와 사역자 약 30 명이 10 월 9 일 이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실종된 채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 대표 현숙 폴리)에 따르면, 시온교회 목회팀은 11 일 발표한 공개 서신에서 “2025 년 10 월 초,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10 월 9 일 이후 시온교회 소속 목회자와 사역자 30 명가량이 전국에서 구금되거나 실종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일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택하며, 갇힌 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온교회는 2007 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가정교회로, 2018 년 정부의 강제 폐쇄 명령 이후에도 전국 40 여 개 도시에서 소그룹 예배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시온교회 담임 진밍르 목사가 체포된 데 이어 지난 9 일 이후 시온교회 관계자 30 여 명의 실종 구금사태까지 벌어진 상황이다.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1989 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베이징 시온교회를 개척해 수천

명의 신자를 이끌며 중국 교계의 대표적 지도자로 부상했지만, 공산당의 종교정책을 비판해온 탓에 오랫동안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되어왔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국제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마크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중국 공산당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시온교회'의 목회자와 구성원 수십 명을 체포한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규탄했다.

루비오 장관은 특히 "시온교회 담임목사 진밍르(晛日, Ezra Jin)의 구금은 중국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정책의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중국 정부는 즉시 모든 구금자를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신앙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은 국제사회가 결코 침묵할 수 없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중국 정부가 가정교회를 사실상 지하로 몰아넣는 전환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단체는 "중국 내 가정교회 약 6 만여 곳 중 절반 이상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 중인데, 이번 시온교회 사태는 그 전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온교회 목회팀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옥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모든 가정교회가 이번 고난을 통해 더 단단히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기독교 일간지 신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52361#share

中, 지하교회 목사 수십명 체포…美국무 "즉각 석방하라", (10.13)

中, 지하교회 목사 수십명 체포…美국무 "즉각 석방하라"

'미승인 가정교회' 시온교회 진밍르 목사 등 30 여명 구금

- 이정환 기자, 정은지 특파원

2025.10.13 오후 05:42



시온교회의 수석 목사 진밍르 씨 ⓒ 로이터=뉴스 1

(서울 · 베이징=뉴스 1) 이정환 기자 정은지 특파원 = 중국 최대 규모의 지하 교회 중 한 곳의 목사 수십 명이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13 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비공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설립자 진밍르 목사(56)가 10 일 저녁 중국 남부의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시의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교회 소속 목사들과 구성원 30 여명도 비슷한 시기에 붙잡혔다고 진 목사의 딸 그레이스 진과 교회 대변인 션 롱이 밝혔다.

진 목사는 '정보망 불법 사용' 혐의로 베이하이시 제 2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혐의로는 최대 7 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진 목사의 지지자들은 목사들이 인터넷을 불법적으로 이용해 종교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 동북부지방 출신의 조선족으로 알려진 진 목사는 베이징대학을 졸업했고, 1989 년 톈안먼(천안문) 사태를 목격한 뒤 기독교로 개종해 2008 년 시온교회를 세웠다.

시온교회는 2018 년 베이징에 있는 예배당이 폐쇄됐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에 줌 설교와 소규모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빠르게 회원을 늘렸다. 롱 대변인에 따르면 시온교회는 약 50 개 도시에 걸쳐 5000 여 명의 정기 예배자를 두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체포는 2018 년 이후 기독교인을 겨냥한 가장 큰 규모의 단속이었으며, 중국 최고 종교규제 기관이 성직자의 허가 없는 온라인 설교나 종교 교육, '외국과의 공모'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졌다.

단속 행위를 두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12 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간섭을 거부하고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며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신앙인이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중국에서 공식적인 개신교 교회는 삼자교회, 가톨릭은 중국천주교애국회가 존재한다. 이들 국가등록 교회는 종교 활동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통계에서는 이러한 국영교회에 등록된 기독교인이 4400 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수천만 명이 공산당의 통제 밖 불법 가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교회 목사 구금과 관련해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당국의 지하 교회 단속 건과 관련해 영사 조력을 접수한 건은 없다"고 밝혔다.

jwlee@news1.kr

https://www.news1.kr/amp/world/asia-australia/5939433

중국 시온교회 목사 등 구금에…美 '종교자유 허용' 촉구, 뉴시스 (10.13)

등록 2025.10.13 10:04:38

국무부, 성명 발표…목사 · 신도 석방 촉구



【베이징=AP/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대규모 구금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은 2018 년 9 월 베이징 시온교회 출입구에 차압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 2025.10.1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대규모 구금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12 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최근 비공식 기독교 단체인 ‘시온교회’의 진밍리(김명일) 목사를 비롯해 다수의 지도자들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가정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다시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중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석방하고, 가정교회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종교인들이 어떠한 보복의 우려 없이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지난 9 일부터 김명일 목사를 비롯한 시온교회 관계자 3 명과 신도 등 약 30 명을 체포했다. 당국은 이들에게 불법 정보 네트워크 이용, 불법 경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온교회는 2007 년 설립된 미등록 가정교회로, 현재 중국 내 40 여 개 도시에서 주일예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5000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2019 년 시온교회 베이징 본당을 강제 폐쇄하고, 김명일 목사를 출국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지의 시온교회 지부에 대한 조사와 관계자 소환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013_0003359725

루비오 美국무 “中, 구금한 목사들 즉각 석방하라”, 세계일보, (10.13)

입력 : 2025-10-13 00:07:11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中, 시온교회 목사 30 명 등 구금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EPA 연합뉴스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최근 중국 공안은 자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를 단속하면서 목사 약 30 명과 신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 출신이다. 1989 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인이 됐고, 이후 가정교회를 세워 신도를 늘려가면서 중국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012510309

美 국무부 "中, 가정교회 탄압 중단하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 규탄, 기독일보(10.13)

美 국무부 "中, 가정교회 탄압 중단하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 규탄

루비오 장관 "신앙의 자유는 보편적 인권"... 진밍르(에즈라 진) 목사 즉각 석방 촉구

기독일보 노형구 기자



당국자들에게 금지당하기 전, 시온교회 주일예배 광경 ©한국 순교자의 소리

미국 국무부가 최근 중국 공안의 대규모 가정교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마크 루비오(Marco Rubio) 미 국무장관은 12 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시온교회(Zion Church)'의 목회자들과 구성원 수십 명을 체포한 것은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특히 시온교회 담임목사인 밍리(明日, Mingri) '에즈라' 진(Jin)의 구금은 중국 정부의 기독교 탄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당의 통제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기독교인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며 "모든 신앙인들이 두려움 없이 예배하고 모일 수 있도록 중국 정부는 즉각 구금된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중국 공안은 최근 시온교회 네트워크를 겨냥한 단속을 벌여 목사 약 30 명과 신도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온교회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표적인 비인가(非認可) 가정교회로, 오랜 기간 정부의 감시 대상이 돼왔다.

특히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진밍리, Ezra Jin) 목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1989 년 톈안먼 민주화운동 당시 무력 진압을 목격한 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후 베이징 시온교회를 개척해 수많은 신자를 이끌며 사회적 영향력을 넓혀왔으나, 공산당의 종교 통제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 중국 당국의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성명을 통해 "신앙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인류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중국 정부의 종교 통제 정책은 국제사회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https://kr.christianitydaily.com/articles/128920/20251013/%E7%BE%8E-%EA%B5%AD%EB%AC%B4%EB%B6%80-%E4%B8%AD-%EA%B0%80%EC%A0%95%EA%B5%90%ED%9A%8C-%ED%83%84%EC%95%95-%EC%A4%91%EB%8B%A8%ED%95%98%EB%9D%BC-%EC%8B%9C%EC%98%A8%EA%B5%90%ED%9A%8C-%EC%A7%80%EB%8F%84%EC%9E%90-%EA%B5%AC%EA%B8%88-%EA%B7%9C%ED%83%84.htm

미 "중, 구금한 가정교회 목사들 석방하고 예배 자유 허용하라", MBC뉴스(10.13)

미 "중, 구금한 가정교회 목사들 석방하고 예배 자유 허용하라"

입력 2025-10-13 00:35 | 수정 2025-10-13 00:37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가 중국 내 기독교인 수십 명을 구금했다면서 즉시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시간 12 일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 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면서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중국 공안은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목사 약 30 명과 구성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입장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64261_36725.html

美 "中, 구금한 가정교회목사들 석방하고 예배자유 허용하라", 연합뉴스, (10.12)

美 "中, 구금한 가정교회목사들 석방하고 예배자유 허용하라"

송고 2025-10-12 23:14

조준형기자

미중 갈등 고조 속 루비오 미 국무장관 성명 발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 목사 등 기독교인 수십명을 구금했다면서 즉시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 공안이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목사 약 30 명과 구성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으로, 1989 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켜본 뒤 기독교인이 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신도를 늘려 나가면서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됐다.

중국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입장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jhcho@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2045000071

중국 가정교회 대대적 단속에…美 '종교자유 허용' 촉구

최상경 기자 2025.10.13 11:38



▲중국 정부가 종교 탄압을 강화하면서 교회 4 천여 곳의 십자가가 최근 무더기로 철거됐다.

[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대규모 구금과 관련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무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2 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 목사 등 기독교인 수십명을 구금했다면서 즉시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중국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입장은 중국의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100% 인상 예고 등으로 양국 관계가 긴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해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 공산당은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성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당국은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벌이며 목사 약 30 명과 교인들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압력은 중국 전역의 비공인 교회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중국 동부에서도 미등록 교회를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이어져 70 명 이상이 구금됐다.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400 명의 경찰과 200 대의 차량이 투입돼 예배 중이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체포됐다"며 "일부는 자택과 직장에서 연행됐다"고 전했다.

오픈도어는 "이번 조치로 가정교회들이 사실상 마비됐다"며 "80 여 개 단체가 모임을 중단했고, 남은 교회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단속 이유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당국은 불법 정보 네트워크 이용, 불법 경영,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픈도어는 이번 사태를 "최근 수년간 미등록 교회를 겨냥한 최대 규모 단속"으로 평가하며 "중국 공산당이 종교를 통제하려는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52357

미국 “중국, 기독교인 수십명 구금…예배 자유 보장해야”, KBS뉴스, (10.12)

입력 2025.10.12 (23:36)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정부가 기독교인 수십 명을 구금했다면서 즉시 석방하고 예배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각 12 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최근 저명한 진밍르 목사를 포함, 중국 내 미등록 가정교회인 '시온교회' 지도자 수십 명을 구금한 것을 규탄한다"며 "이 탄압은 중국 공산당이 신앙에 대한 당의 간섭을 거부하며 미등록 가정교회에서 예배하기를 택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적대하는지 한층 더 잘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구금된 교회 지도자들을 즉시 석방하고, 가정교회 구성원들을 포함한 모든 신도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촉구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중국 공안이 중국 내 가정교회 네트워크인 '시온교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면서 목사 약 30 명과 구성원들을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진밍르 목사는 조선족으로, 1989 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지켜본 뒤 기독교인이 돼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신도를 늘려 나가면서 당국의 요주의 인물이 됐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8593